

ON

따뜻함(溫)을 주는 인하대병원
당신의 안전을 위해 365일 ON

2021 AUTUMN

vol.142

계절을 먹는 즐거움

먹는 일은 일과 중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제철 식재료를 세심하게 챙기는 건 건강을 챙기는 일이기도 하지요. 제철 식재료는 신선할 뿐만 아니라 계절의 영양을 가득 품었으니까요. 지금은 무화과가 제철입니다. 과일의 귀족이라고 불리는 이 열매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을 정도로 귀한 과일이에요. 올가을엔 제철 과일, 무화과를 드세요. 단백질 분해효소를 많이 품은 무화과는 육식을 한 뒤 결들이면 소화를 돕고 변비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올가을, 제철 식재료를 챙겨 먹으며 우리의 건강도 챙겨요.

마음에 발그레 단풍 드네

가을엔 길을 걷지 않아도 방향을 한다. 시들어가는 풀 앞에 새겨진 그 이름을 읽으면 가을엔 길을 걷지 않아도 방향을 한다.

박우복 시인의 <가을 속에서>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그대를 위한 계절, 가을입니다. 바쁜 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해도 좋은, 고개 들어 푸른 하늘에 걸린 빨갛고 노란 단풍을 하염없이 감상해도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다 보면, 청명한 계절 기운과 다정한 햇살에 마치 계절을 처음 마주한 사람처럼 마음이 발그레 물들 거예요.



• 이 제작물은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글꼴을 사용하여
디자인 되었습니다.

인하대병원보 2021년 가을호(통권 제142호)
발행일 2021년 9월 10일
발행인 김영모
발행처 인하대병원 홍보팀
기획·편집·사진·디자인 스튜디오100 (02-511-9369)
인쇄 (주)한강문화
등록번호 인천마01031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신흥로 3가 7-206)
전화 032-890-2114
팩스 032-890-2998

CONTENTS

Vol.142
2021 AUTUMN

2	철나의 순간	계절을 먹는 즐거움 마음에 발그레 단풍 드네
SPECIAL THEME		
8	SPECIAL THEME 01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니까요
10	SPECIAL THEME 02	읽어가겠다
14	SPECIAL THEME 03	슬기로운 독서 생활을 위하여
18	SPECIAL THEME 04	디지털 시대가 열어준 광활한 독서의 세계 가을에 누리는 호사, 도서관 나들이

사람과 건강

22	건강 읽기	암 환자의 정신건강 관리, 선택 아닌 '필수'다
24	인하포커스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0	영화와 인생	영화 <본투비블루>와 <모베터블루스>
34	계절밥상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표고버섯 만찬
36	콧노래 여행	예술 같은 마르케
42	친절한 인하인	친절한 인하인을 소개합니다

인하, 사람

44	인하가 만난 사람	공용윤리위원회 연명의료상담실
48	인하라운지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심뇌혈관 건강 사수 작전
50	인하이슈	인천 최초로 도입한 방사선 암 치료 장비 '헬시온'
52	톡톡 약물상담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53	인하미디어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54	인하뉴스	인하대병원 소식
56	진료안내표	



SPECIAL THEME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니까요

덥지도 춥지도 않은 계절, 가을이 익어갑니다. 바야흐로 독서의 계절입니다. 구태의연하지만 이 계절 굳이 '책'이라는 주제를 꺼내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갈수록 책을 읽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북디렉터 하바 요시타카는 그의 저서 『책 따위 안 읽어도 좋지만』(더난출판사)에서 “읽는 사람은 읽는다. 조금만 노력하면 스스로 책을 찾을 수 있다. (중략) 지하철에서 책 읽는 사람을 찾아보자. 드물게 발견한 날은 멸종위기종을 만난 기분이다”라고 쓰며 서글픔과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또 “최근에는 인터넷 검색으로 (중략) 정리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책을 읽은 기분을 느끼기도, 책을 읽은 착하기도 편한 세상이다. 그렇지만 독서는 글을 쓴 사람과 읽는 사람의 일대일 관계에서 시작된다. 자신이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고, 마음 속 무엇이 움직였는지가 중요하다”며 책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지요. 인생의 고비마다 '선택과 결정'이라는 난제 앞에서 누군가의 조언이 절실할 때, 책 속에서 방향과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던 일 잠시 멈추고, 휴대폰 작은 창에 파묻고 있던 고개를 들고 이제 책 한 권 집어 들어볼까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니까요. 책장을 넘기는 당신의 모습은 무조건 아름다울 테니까요. 2021년 가을호 <ON>에서는 책을 만납니다. 글 편집부 사진 백기광(스튜디오100)

읽어가겠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 새해, 새날 계획을 세우는 건 나의 오랜 습관이다. 일종의 의식과도 같은 이 행위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뤄진다. 십 수년째 커피 프랜차이즈의 마케팅에 충성하며 받아내는 다이어리 종이 위에 검은 색 펜으로 콕콕 눌러쓰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리스트는 매년 대동소이한데, 단골로 등장하는 항목이 다이어트, 운전하기, 영어 공부 같은 것들. 여기에 하나 더 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지 모르는 그 하나는 바로 '책 50권 읽기'. 안타까운 건 근 10년 이래 판에 박힌 듯 똑같이 '바쁘다'는 핑계로 목표 독서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책 읽기에 대한 나의 집착은 꼭 다르게도 나타난다. 직업 특성상 서점 등을 자주 드나드는 편인데, 물욕이 많은 DNA를 가진 덕분인지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늘 양손 무겁게 나오는 형편이다. 종이책을 몇 권이나 품에 안고 켕켕대며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내겐 너무 익숙하다. 책장에는 먼지를 잔뜩 이고 있는 책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잠자는 머리맡에는 늘 두꺼운 책 한 권이 놓여 있다. 수년째 진도를 나가지 못하는, 내게 무척 어려운 책이다.

이제는 솔직하게 말할 차례다. 사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책 읽기와는 거리두기를 좀 해왔다. 해를 거듭하며 점점 멀어졌다고 해야 할까. 의도하지는 않았다. 더 재미있는(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만난 탓이다. 책보다 작은 직사각형 모양의 세상, 스마트폰이 선사하는 우주 같은 세계. 어제도 그제도 잠자리에 누워 '책을 읽어야 한다' '책장을 펼쳐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먼지 손이 닿은 건 작은 휴대폰 화면이었다. 게임과 영화, 가까운 누군가와의 모바일 대화 등에 더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렇게 휴대폰만 보는 스스로를 탓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왜 때문에, 언제부터 이토록 책과 멀어졌을까.

책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는 하나 더 있다. 어려서부터 다양한 장르의 책을 꽤 읽어왔고, 어디 가서 내세울 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부끄럽지 않은 수준이다. 그런데 요즘은 알량한 독서량 가운데서도 편식하기 일쑤인 것도 씩 마음에 들지 않는다. 쉬운 책, 깊은 사색을 요구하지 않는 책 위주로만 골라 든다.

책은 읽지 않고 휴대폰 화면만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죄책감을 갖는 건 아무래도 책이 주는 건강한 매력을 잘 알고 경험했기 때문일 것이다. 책을 통해 깊이 사유하고 넓게 성찰하며 내면이 성장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올해도 '책 50권 읽기'라는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 다독(多讀)은 여전히 멀고 어렵다. 책을 많이, 자주 읽지는 못하지만 외출하는 나의 가방에는 어김없이 책 한 권이 동행한다. 만보 걷기를 하면서 걷기 위해 일정 중 어느 정도의 시간을 쪼개는 버릇이 생겼다. 그리고 매번 똑같은 고민을 하며 갈팡질팡한다. 약속 시간보다 먼저 나가 1시간을 걸을 것인가 vs. 1시간 일찍 도착해 카페에 들러 책을 읽을 것인가. 이도 저도 아니고 약속 시간에 간신히 도착하는 날도 많지만,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받은 날, 괜히 마음이 울적한 날, 어쩐지 유독 심심한 날이면 속으로 생각한다. 괜찮다고, 책이 있다고, 책을 읽으면 된다고. 이렇게 책은 내게 위로이자 격려이고 응원이며 삶의 든든한 나무가 되어준다.

요즘 지하철에서 종이책을 펴고 읽는 사람을 만나면 근사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향기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도 모두 가슴에 아날로그 하나 정도는 품고 살지 않나. 올가을에는 잠시 휴대폰과 거리두기를 하고, 책에 시선을 주자. 분명 이 가을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단, 마음이 편해야 책도 술술 잘 읽히므로 고민은 잠시 던져두길 바란다. 오늘 밤에는 읽고 있는 그 책을 끝까지 읽어가겠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을 위하여

책을 많이 읽는다고 무조건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다. 책을 읽으며 쌓은 지식이 깨달음을 동반하고, 그 깨달음을 실천해 삶 속에 녹아들 때 비로소 지혜가 되는 것일 테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서 나오는 혜안(慧眼)에 있는 건 아닐까. ‘지혜를 찾는 인생’을 핑계로 책 한 권 읽는다면 더할 나위 없는 가을이겠다. 독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동안 몰랐던 ‘가을과 책’ 이야기

가을을 표현하는 이름이 많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 그리고 독서의 계절, 가을이다. 가을을 표현하는 관용어는 우리에게 무척 익숙하다. 갑자기 작은 물음표가 생긴다. 그렇다면 가을은 왜 독서의 계절이 되었을까. 출판 업계의 마케팅설을 제외하고라도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 된 이유는 있다.

우리나라에 독서와 가을을 연관 짓는 문장이 처음 나타난 것은 1920년대였다. 1925년 10월 30일자 조선일보에 가을을 독서의 계절로 정의했고, ‘도서관주간’을 맞아 경성부립도서관과 조선총독부도서관을 무료로 개방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계절의 특성 때문이다. 가을은 하늘이 맑고 기온과 습도가 적당해 다른 계절에 비해 독서에 더 쉽게 집중할 수 있다. 가을은 보통 기온이 18~20도 사이고, 습도는 40~60% 정도로 공기가 쾌적하다. 또한 공기 중 먼지가 적어 가시광선의 파란 빛이 더 잘 전달되다 보니 다른 계절보다 훨씬 높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 봄이든 겨울이든 사실 책 읽기는 언제나 좋지만 서늘한 기후야말로 독서에 제격이라는 것이다. 중국 당나라 사상가인 한유 선생이 아들에게 독서를 권하며 쓴 편지에서 ‘등화가친(燈火可親)’, 즉 “날이 서늘하니 등불을 가까이하기 좋다”는 문장만 봐도 알 수 있다.

활자가 건네는 치명적 매력

독서의 장점은 이미 모두 잘 알고 있다. 첫손에 꼽는 장점은 단기간에 간접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데, 물리적으로 한계를 지닌 시간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경험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독서를 하면 한 권에 들어있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수한 세대의 지식과 그들이 체득한 노하우를 손쉽게 얻는다.

독서가 뇌를 자극해 알츠하이머와 치매 등 정신 질환을 예방하는 것도 이미 널리 알려진 좋은 점이다. 어휘력은 또 어떨까. 사용하는 어휘는 풍부해지고 나아가 글쓰기 실력도 좋아진다. 무엇보다 책 읽기는 치유의 과정이다. 누구나 인생길 위에서 삶의 무게에 때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때 우연히 펼친 책장에서 위로의 활자를 발견하기도 한다. 상상력, 기



이번 가을 호 <ON>에서는
인하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운영 선생님과
한국북큐레이터협회 김미정 회장님이 만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관련 영상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인하대병원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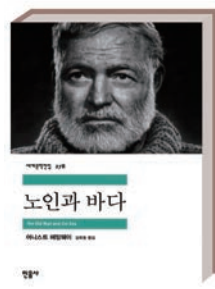
한국북큐레이터협회 김미정 회장의 추천 도서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우종영 | 메이븐



비에도 지지 않고
 미야자와 겐지 | 그림책공작소



노인과 바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 민음사

“이 세 권의 공통점은 삶을 대하는 자세라고 할까요. 최근 읽은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는 저자의 연륜에서 묻어나는 깊은 생각들이 무척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비에도 지지 않고』는 작가가 병약함에도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힘이 되어주고, 『노인과 바다』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 권합니다. 숲을 거닐 듯 책으로 힐링하고, 삶의 역경에 당당히 맞서는 내용은 제게 에너지가 됩니다. <ON> 독자, 그리고 인하대병원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역력, 공감 능력을 높이는 것도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다. 특히 독서는 스트레스 수치를 떨어트린다. 책을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게 되는데, 몰입하면 잡생각이 사라지고 정신이 한곳에 모이니 스트레스는 저만치 달아난다.

한국북큐레이터협회 김미정 회장은 책 읽기의 매력에 대해 “책을 읽는 효과는 상당하다. 소소한 즐거움에서부터 발견하고 알아가며 깨닫는 재미까지 다양하다. 그중 책이 주는 긍정적 영향은 ‘자기성장’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답게, 나답게, 더불어 사는 것 등 ‘관계’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기성장을 독서에서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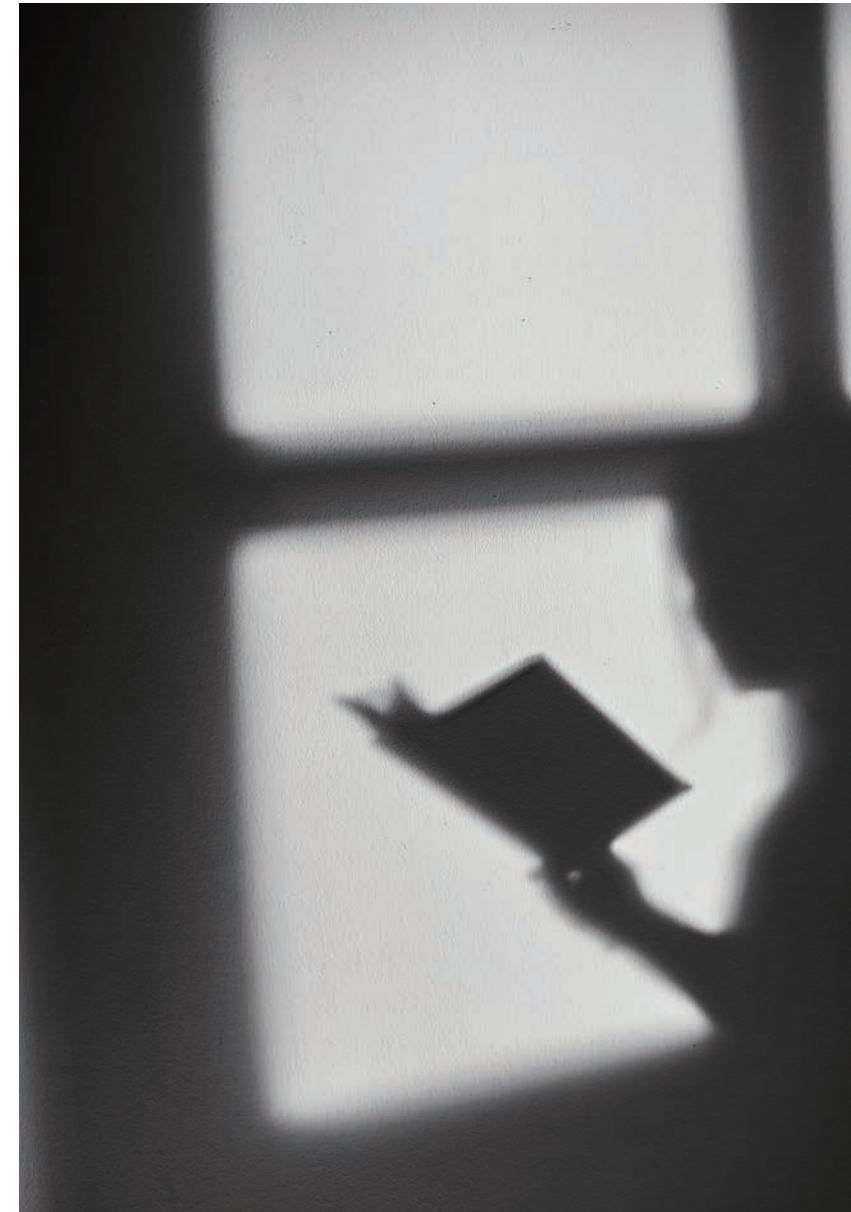
어떻게 읽어야 할까

우리는 독서가 주는 이로움을 알면서도 왜 책을 읽지 않는 걸까. 책은 늘 가까이 있지만 손이 잘 닿지 않는다. 지나치게 바쁜 일상 탓일까. 업무에 치이다 보면 저력 무렵에는 에너지를 소진하기 일쑤다. 당연히 책 읽을 에너지란 남아 있지 않고 책 읽기는 또 다른 업무와 같은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 요즘은 뭐니 뭐니 해도 독서의 가장 큰 적은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과 꼭 붙어 지낸 지 어느 틈에 10년이 흘렀다. 스마트폰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책 읽을 시간이 줄어든 게 사실이고, 짧은 시간에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간단한 콘텐츠에 사로잡히게 됐다. 필요한 정보는 책이 아닌, 검색으로 얻는다. 그렇다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 사실 정해진 독서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읽기 주저하는 이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전한다.

내가 몇 년 전부터 독서에 대하여 깨달은 바가 큰데, 마구잡이로 그냥 읽어내리기만 한다면 하루에 백번 천번을 읽어도 읽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무릇 책을 읽는 도중에 의미를 모르는 글자를 만나면 그때마다 널리 고찰하고 세밀하게 연구해서 그 근본 뿌리를 파헤쳐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날마다 이런 식으로 읽는다면 수백 가지의 책을 함께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읽어야 책의 의리(義理)를 훤히 꿰뚫어 알 수 있게 되느니 이 점 깊이 명심해라.

『시대부가 살아가는 도리』 기유아(寄遊兒),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장비)

그렇다. 책은 다독(多讀)보다 정독(精讀)이다. 책을 읽는 동안 뇌를 사용하면서 읽었는지 아니면 눈으로만 읽었는지에 따라 효과 차이가 크다. 또 책을 읽고 나서 정리와 사유의 시간을 가지면 독서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책을 읽기 전 무엇을 얻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래야 지식이 아닌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 서점에서 제안하는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 ‘추천 도서’에 사로잡히지 말 것을 권한다. 스스로 좋아하는 관심 분야의 책을 읽으면 된다. 최근 경향과 트렌드를 따라가는 데 급급하면 책 자체에 흥미를 잃을 수 있다. 게임이나 영화, 스포츠처럼 즐길 수 있는 책을 찾아 읽으면 충분하다. 어려운 책을 읽어야 한다는 편견도 버리자. 장르 소설, 만화책이나 그래픽 노블, 그림책도 당연히 좋다.

처음부터 목표를 과하게 설정하지 않는 것도 책 읽는 데 도움이 된다. 하루 한 문단, 또는 한 문장이라도 읽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집에서 책 읽기가 어렵다면 장소를 바꿔보자.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읽거나 서울 연희동 ‘책 바(Bar)’와 같은 이색 공간을 찾아보는 것도 추천한다. ‘책 바’는 책과 술을 좋아하는 이가 찾으면 좋을 공간으로 위스키, 칵테일을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다.

혼자 책 읽는 시간이 고독하고 외롭다면 여럿이 함께 같은 책을 선정해 읽고 감상을 나누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잠시 멈춤’이지만 거주하는 지역의 도서관 등에서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운영하므로 눈여겨보자. 같은 독서 취향을 지닌 이들을 만나 사교의 장을 넓히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디지털 시대가 열어준 광활한 독서의 세계

시대가 변하면서 책을 읽는 모습도 바뀌었다. 종이책에서 전자책을 넘어 책을 듣는 시대까지 왔다. 그만큼 책 속 활자를 접하고 책 안에 담긴 정보와 지식을 읽는 방법이 다양해진 것. 요즘 시대, 책 읽는 방법에 대하여.

종이책과 전자책 사이 어디쯤

스마트폰이 등장한 뒤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을 읽는 이들이 늘어났다. 전자책은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한 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열어 책을 읽는다. 전자책 리더기(e북 단말기)도 등장했다. 전자책 리더기는 수천수만 권의 책을 작고 가벼운 기계 하나에 모두 담을 수 있다는 큰 매력에 지녔다. 여행 짐은 가벼울수록 좋으므로 긴 여행을 떠날 때는 특히 편리하다. 와이파이와 연결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읽고 싶은 책을 바로 다운받아 읽을 수 있다. 종이책에 비해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검색도 쉽다. 찾고 싶은 단어 하나만 넣어도 금세 검색이 된다. 공유도 가능하다. 어두운 환경에서도 읽을 수 있는 것은 전자책의 큰 장점이다. 전자책을 읽으며 독서량이 늘었다는 이들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9년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자책 독서율은 성인 16.5%, 학생은 37.2%로 증가 추세(2017년보다 각각 2.4%, 7.4% 증가)를 보였는데, 특히 20~30대 중심으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여전히 종이책을 고수하는 이도 많다. 종이책만이 가진 감성 덕분이다. 종이책만이 가진 '무엇' 덕분에 손에서 종이책을 놓지 못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오랜 역사를 지녔기에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다는 것. 종이책은 소중한 누군가에게 선물하기에도 좋다. 종이책이 선사하는 인텔lectual 효과도 있다. 배담의 민족 김봉진 대표는 그의 저서 '책 잘 읽는 방법'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작디작은 원룸에, 또 작디작은 책장 한 칸에는 무려 36권의 책이 쌓여있는데, 이 책들을 멋있게 커커이 쌓아놔서 보기에 좀 그렇지. 멋있는 책장에 북엔드로 이쁘게 쌓아놓는다면 아주 예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성인 2명 중 1명은 종이책을 1년에 1권도 안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책 독서율과 독서량은 줄었다. 위의 조사 결과 성인의 종이책 연간 독서율은 52.1%, 독서량은 6.1권으로 2017년에 비해 각각 7.8%, 2.2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에는 대부분 종이책과 전자책을 동시 출간한다. 전자책이 대중화되기 전 등장했다가 단지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일찍 절판되어 버린 비운의 훌륭한 책들은 중고 거래를 통해 종이책으로 구해야 하는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도 존재한다.

귀로 읽다, 오디오북

귀는 듣는 역할을 하는 감각기관이다. 이제는 '귀로' 책을 '읽는다'. 오디오북을 통해서다. 오디오북이란 내레이터가 책을 읽어 녹음한 콘텐츠로, 새로운 책 읽기 방법이다. 눈으로 책을 읽는 대신 귀로 듣는 것이다. 유명인들이 내레이션에 참여하면서 오디오북 인기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오디오북의 장점은 종이책이나 전자책에 비해 '독서'의 부담이 없다는 것. 눈이 피로할 때뿐 아니라 시끄럽고 복잡해 책장을 펼칠 수 없는 곳에서도 책 읽기가 가능하다. 시간 활용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운동, 청소 등을 하면서 귀로 책을 읽을 수 있다. '윌라'는 대표적 오디오북 플랫폼이다. 2018년 등장한 오디오북 플랫폼 '윌라'는 2019년 가입자 33만 명에서 2020년 106만 명으로 늘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오디오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미국, 캐나다,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세계 18개국 MZ세대 9000명을 대상으로 '2021 MZ 문화 트렌드(2021 Culture next)'를 설문 조사한 결과, M세대와 Z세대 모두 과반수가 오디오 콘텐츠를 시각 콘텐츠보다 건강에 도움된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오디오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디오북을 선택할 때는 내용뿐 아니라 내레이터의 음성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듣는 이의 취향과 맞지 않는 목소리면 내용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고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책 읽어주고 추천해준다

책을 큐레이션 해주는 팟캐스트, 오디오클럽, 유튜브 등도 여럿 생겨나고 있다. 유튜브 플랫폼에서 책을 소재로 방송하는 유튜버, 일명 북크리에이터, 북튜버(Book + YouTuber의 합성어)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팟캐스트를 벗어나 SNS를 중심으로 '책 읽어주는 남자', '책 속의 한 줄' 같은 큐레이션 콘텐츠가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유튜브 플랫폼으로 영역이 확장됐다. 약 3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따듯한 목소리 현준'은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저녁 10시에 책 한 권을 선정해 1시간 정도 읽어준다. 우리나라 대표 북튜버 채널은 겨울서점 Winter Bookstore, MKTV 김미경TV, 책읽기좋은날, 책한민국 등이 있다. 북튜버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북튜버가 추천하는 도서들이 베스트셀러 차트 역주행을 하는 등의 기록을 세워 국내 출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판업계에서는 '유튜버셀러'(유튜브 + 베스트셀러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전자책(e-book) 플랫폼

리디북스 전자책 플랫폼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곳. 일반 서적, 만화, 매거진, 웹소설, 라이트노벨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접할 수 있다. 안정성과 호환성이 좋다는 평이다. 최근 리디셀렉트라는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월 9,900원 정액제를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다. 리디셀렉트는 대여서비스이므로 소장은 어렵고, 한 번에 10권까지 빌릴 수 있다.

밀리의 서재 월 1만1,900원으로 구독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신간이 빠르게 들어오는 장점이 있다. 매월 3000권이 업데이트 된다. 배우, 성우, 아나운서, 작가들이 직접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주는 리딩북이 있는 것도 밀리의 서재만의 장점이다.

교보문고ebook 유명 대형서점에서 운영한다. 소장 권수가 많다. 대여 권수와 이용기간에 따라 베이직과 무제한으로 월정액이 나뉜다. 무제한은 9,900원으로 이용 가능하고 베이직은 대여 권수에 따라 다양하게 나뉜다. 각자의 독서량에 따라 정액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가을에 누리는 호사, 도서관 나들이

굳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가을과 책은 제법 어울린다.
선선한 가을, 지금 찾으면 딱 좋을 도서관 4곳을 소개한다.

미술관 품은 도서관

의정부미술도서관

요즘 변신을 거듭하는 도서관 행보의 대표주자. 의정부미술도서관은 미술관을 품에 안은 도서관이다. 2019년 11월 개관한 이곳은 의정부의 끝자락 하늘농선 근린공원 안에 위치한다. 책을 읽고 보는 것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의정부미술도서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1층부터 3층까지 뿔 뿔린 독특한 인테리어에 압도당한다. 너른 유리 창문 너머로는 자연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중앙 나선형 계단을 이용하면 1층부터 3층까지 하나로 연결된 구조. 1층 '아트 그라운드'는 건축, 패션, 공예, 회화, 디자인 등 미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 분야 책과 자료가 가득하다. 2층 '제너럴 그라운드'는 예술 이외 분야의 책이 자리한다. 3층의 기증 존은 미국 호놀룰루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등 국내외 미술계에서 기증한 도서들로 채워져 있다. 의정부미술도서관에는 4만여 권이 넘는 다양한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을 고를지 망설여진다면 '큐레이션' 섹션이나 '사서가 사서 읽은 책' 섹션을 참고하자.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248 문의 031-828-8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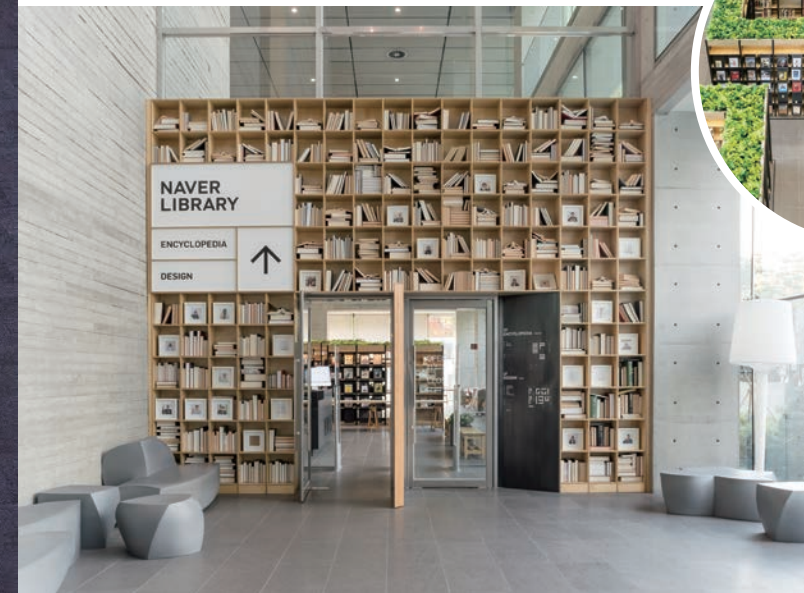


디자인 & IT 전문 도서관

네이버 라이브러리

네이버의 사옥 그린팩토리 1·2층에 마련된 라이브러리는 약 400평 규모의 공간에 디자인 및 IT 관련 전문 도서 2만여 권을 전시해 놓은 도서관이다.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해외 29개국의 전문 도서를 갖춰 놓은 점이 특징이다. 별다른 절차는 없지만 회원 가입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라이브러리 1층은 도서관, 2층은 모임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1층 한편에는 매거진 섹션과 독립출판물 섹션을 각각 마련해뒀다. 2층에서는 건축·인테리어, 일러스트·캐릭터, 그래픽, 멀티미디어 등 디자인 서적과 디자인 잡지 등을 접할 수 있다. 도서관 곳곳에 자리한 초록 식물 덕분에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운영을 중단했으나 참고하자.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불정로 61~2층 문의 1588-3830





사계절을 고스란히 마주하는

삼청공원 숲속 도서관

2018년 12월 7일,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색스(David Sax)는 그의 글 〈혁신에 대한 집착을 끝내다(End The Innovation Obsession)〉에서 삼청공원 숲속 도서관을 방문한 느낌을 적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커피 한 잔과 함께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게 설계된 삼청공원 숲속 도서관은 21세기 디지털 문명 세계에서 진정한 힐링을 제공하는 '사람 중심 혁신'의 정수라는 내용이다. 그의 표현대로 혹은 도서관의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삼청공원 숲속 도서관은 도심 속 무릉도원으로 불려도 좋다. 지난 2013년, 원래 낡은 매점이었던 곳을 종로구가 북카페형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 문을 열었다. 이곳은 진짜 숲이 우거진 삼청공원 안에 위치해 자연과 책이 어우러진 근사한 풍경을 선사한다. 삼청공원 숲속 도서관은 사방이 큰 유리창이라 사계절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요즘 같은 가을에는 붉고 노란 단풍이 그림 액자처럼 걸려 있다. 8000여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좌석은 총 50석이 있다. 이곳에서 책을 읽다가 삼청공원 한 바퀴 산책하고 와도 좋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으로 도서관 내 카페만 이용할 수 있다.

위치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34-3(삼청공원 내) **문의** 02-734-3900

또 다른 여행을 시작하다

현대카드 트래블 라이브러리

여행과 책을 좋아하는 이들의 아지트였던 현대카드 트래블 라이브러리. 이곳이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진다. 오는 10월 31일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기 때문.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다면 서둘러 방문해보자. 2014년 5월 서울 청담동에 문을 연 현대카드 트래블 라이브러리는 여행을 테마로 책과 문화를 결합한 공간이다. 도서관 내부는 '예술·건축', '역사·유산', '모험' 등 모두 13개 테마로 구성됐으며, 관련 도서 1만5000여 권을 갖췄다. 도서관 곳곳에서 여행과 관련한 세계적인 간행물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독특한 인테리어도 볼 만하다. 사람들로 붐비는 공항을 연상시키는 1층, 비행기에 오를 때 이용하는 트랩처럼 하얀 타일로 마감된 계단, 창문 없이 불규칙한 높이의 서가로 공간을 아늑하게 만든 2층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현대카드 트래블 라이브러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여행 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여행 테마 공간에 대한 수요도 감소해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뮤직, 요리, 디자인 등 현대카드의 다른 라이브러리는 계속 운영하므로 이곳에서 아쉬움을 달래보자.

위치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52길 18 **문의** 02-3485-5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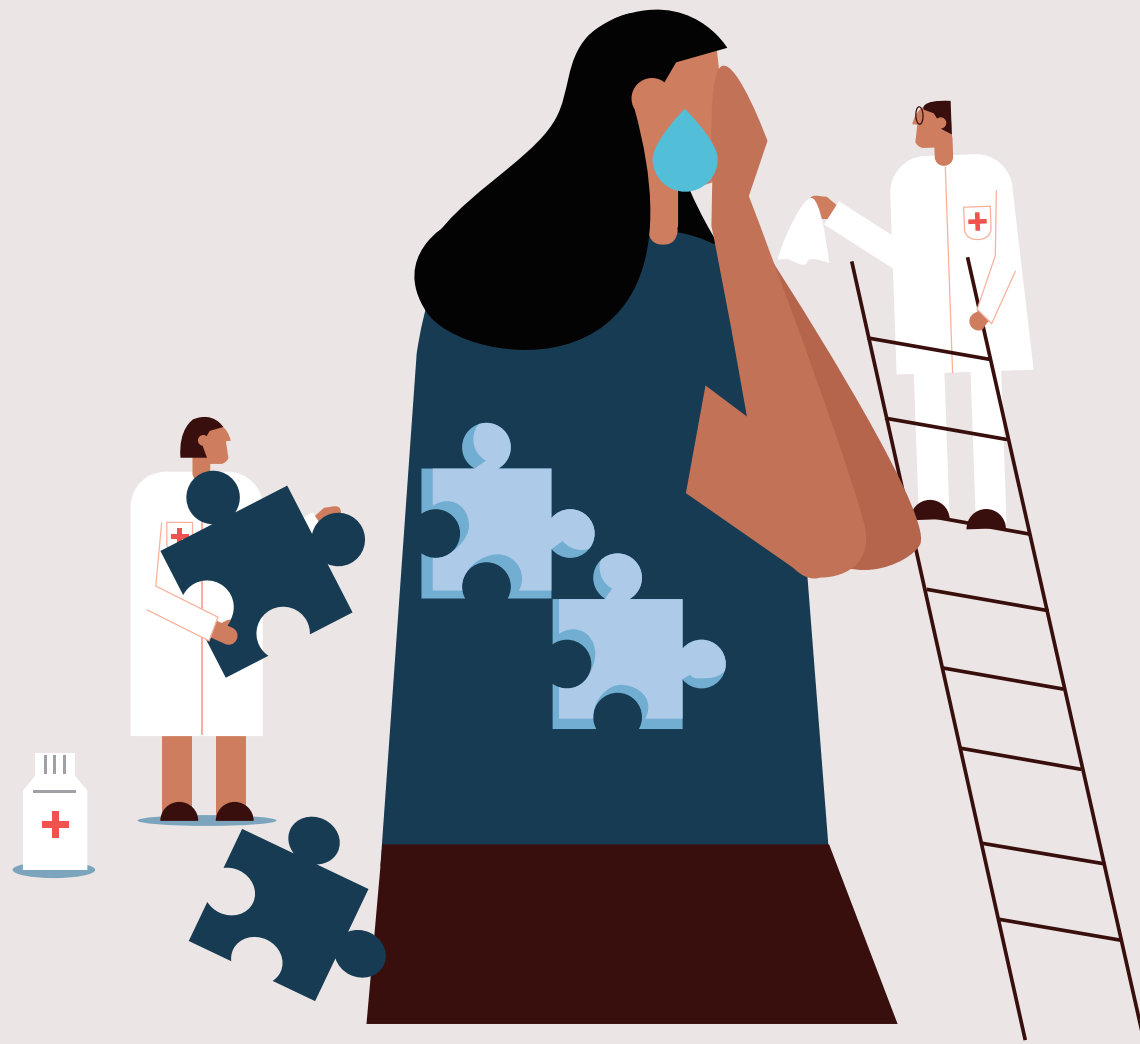


건강한 삶을 꾸리다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건강한 삶을 제안합니다.

암 환자의 정신건강 관리, 선택 아닌 ‘필수’다

‘암’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다. 그런 만큼 한국인이 두려워하는 질병 중 첫손에 꼽는다. 하지만 낙담하지 말자. 암 진단과 치료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치료 뒤 암 환자의 정신건강 관리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암 환자의 디스트레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암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암 치료는 단순히 암 환자의 ‘생존’에만 집중하던 것을 넘어 암 환자의 ‘삶의 질’ 증진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종합암네트워크(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NCCN)는 암 환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해 모든 암 환자의 ‘디스트레스(distress)’를 필수적으로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디스트레스란 ‘심리적 고통이 함께하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주로 암 환자의 정신적 고통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이며, 암 환자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알려졌다.

미국 존스홉킨스(Johns Hopkins) 암센터에서는 암 환자 3명 중 1명이 디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유병률이 더 높아서 전체 암 환자 중 40%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암 환자의 우울, 불안, 불면, 식욕부진, 구역감, 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디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환자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료 의지에도 영향을 미쳐 치료 순응도를 떨어뜨린다.

또 암 환자의 디스트레스는 신체 증상의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디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암의 진행을 촉진한다. 실제로 우울증이 있는 폐암 환자들이 더 일찍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 환자는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와 같은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디스트레스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많다. 재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치료 후유증, 신체 기능의 저하 등은 암 환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디스트레스 관리

암 환자의 디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국내 여러 병원에서는 암 환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클리닉 진료를 제공한다. 하지만 많은 암 환자와 보호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모르고, 또 알고 있다 해도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편견 때문에 진료를 주저하기도 한다.



암 환자의 디스트레스를 단순한 개인의 취약성으로 여기는 편견, 치료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물에 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암 환자를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장벽이 된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권유할 경우 환자와 관계가 틀어질 것을 염려해 진료가 늦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달리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암 환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암 환자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우울, 불안, 불면과 같은 정신 증상뿐 아니라 통증, 식욕부진, 구역감과 같은 신체 증상의 호전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환자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상담을 하며 암으로 인한 절망이 더 나은 삶을 향하는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한다. 즉 암과 같은 극한 역경 이후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외상 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암 환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부정적이었던 보호자들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후 변화된 환자의 모습을 보고 치료를 적극 원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암 환자의 예민함이나 짜증이 줄어들고 식욕, 수면이 좋아지는 모습은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간병하면서 함께 스트레스를 받던 보호자에게는 기쁨에 내리는 단비처럼 느껴진다.

암 환자의 정신건강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암 진료 과정에서 겪는 우울, 불안, 불면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와 도움을 받아 극복해야 한다. 암 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삶의 질 증진과 암 후유증 예방관리에 필요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시 장애인 의료시스템의 컨트롤타워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인하대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역장애인보건 의료센터는 나이, 성별, 장애 종류, 장애 중증도에 관계없이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들의 장애와 관련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보건 의료 환경을 제공한다.



안은지
작업치료사



박우영
행정 담당



이예지
사회복지사



이선윤 간호사



정한영 센터장



김예성
간호사(팀장)



임다혜
사회복지사



인천 유일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146,321명으로, 인천시 전체 인구 2,945,454명 대비 5%에 해당한다. 이는 전국 장애인 비율(장애인 2,633,026명/전체 인구 51,829,136명)과 비슷한 수치이다. 반면 장애인 미충족 의료이용률이 높고,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이 넓게 분포해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이 낮아 지역 간 장애인 보건의료 자원의 불균형이 문제점으로 대두돼왔다. 이에 장애인의 건강보건의료관리를 위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7월 인하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올 1월 28일 개소식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역별 장애인 실태를 조사해 지역현황에 맞는 의료·보건·복지 서비스 자원을 연계하는 일을 담당한다. 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장애인의 건강보건의료사업', '여성장애인을 위한 모성보건사업', '보건의료인력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한 교육사업', '건강검진 및 진료,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등 크게 4개 분야다.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센터로 연락하면 인천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의료·보건·복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다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립 목적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특성에 따른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와 재활의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건강보건의료사업을 널리 알리고,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정한영 센터장을 비롯해 팀장으로서 전체 센터 사업을 조율하는 김예성 간호사와 여성장애인 모성보건사업을 담당하는 이선운 간호사가 있다. 또한 보건소 CBR사업 지원을 담당하는 안은지 작업치료사, 장애인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예지 사회복지사, 교육 사업을 담당하는 임다혜 사회복지사, 그리고 센터 운영과 사업진행을 위해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박우영 행정담당까지 7명의 구성원이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거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힘든 의료취약계층 장애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19 안심콜 서비스' 사업을 홍보하고 등록을 독려한다. 이 사업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에 신고하면 미리 입력해두었던 환자 병력정보를 구급대원에게 전송돼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방향이나 이송병원 선정 등에 도움을 준다. 또한 신고와 동시에 등록된 보호자의 연락처로 환자의 신고 건에 대한 문자서비스와 함께 이송된 병원의 정보를 알려주는 안심 응급의료 시스템이다. 하지만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가입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고자 인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인하대병원 카카오톡 채널에 '119 안심콜 서비스'란을 오픈해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이 사업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센터 구성원들은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시행하는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고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담당 업무를 하면서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경제적·사회적 지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가족 당사자들 또한 스스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다고 말한다.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해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보건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표

하는 분들도 만났지만, 충분히 만족을 못했다는 반응도 있었던 만큼 더 공부하고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또한 장애인이 직면한 현실에 마음 아파하고 제도 개선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특히 임신, 출산, 성폭력 등 무방비하게 지역사회에 노출된 지적여성장애인의 성문제에 더욱 촛점을 높이기도 했다. 특히 임신, 출산, 성폭력 등 무방비하게 지역사회에 노출된 지적여성장애인의 성문제에 더욱 촛점을 높이기도 했다. 특히 임신, 출산, 성폭력 등 무방비하게 지역사회에 노출된 지적여성장애인의 성문제에 더욱 촛점을 높이기도 했다.

장애인이 가장 먼저 찾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코로나19로 장애인들의 외출이 줄고 타인과의 만남조차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센터는 비대면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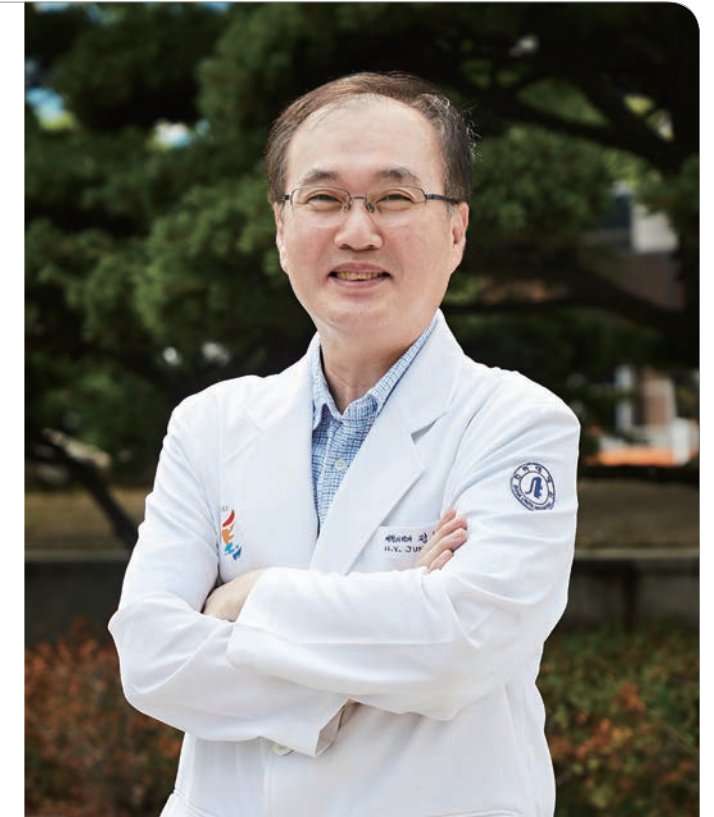
업을 통해 장애인이 주체적으로 건강관리를 해나가고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의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 건강보건의료 기반 확대, 장애인 건강격차 해소,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는 4가지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사업안내 지침과 인천 지역 특성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소규모 대면 사업을 진행하고, 동시에 회의와 교육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센터 구성원들의 바람대로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인천시 지역 장애인이 최우선으로 찾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응원한다.



Mini Interview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정한영 센터장 차별 없는 보건의료혜택을 누리는 날을 꿈꾸며

의과대학 시절 뇌성마비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같이 공부하고 재활치료를 도우며 2년간 진심 어린 봉사활동을 했다. 이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하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시기에 청년이 된 그 아동을 다시 만났다. 정한영 센터장은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온 그 귀한 만남을 계기로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이자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이사로 남다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정한영 센터장의 전문분야는 뇌신경재활, 즉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뇌성마비 환자의 재활이다. 그의 진료 철학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각각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활치료방법을 선택하되 가능한 한 저렴하고, 가능한 한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재활치료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환자를 만날 때 ‘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들어주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자신의 질병이나 장애를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서 환자가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 일도 의사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정한영 센터장이 진료하는 환자는 대부분 신체장애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이 병원 안팎의 환경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병원 내에서는 어느 정도 독립생활이 가능하지만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는 가족의 유무, 가옥 구조, 거주지역의 지형 등이 환자의 자립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질병과 장애 중증도, 가족, 경제력, 거주지역의 의료기관 이용도, 장기요양보험혜택 사용 유무 등을 모두 고려해 퇴원과 퇴원 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한영 센터장은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직접 장애인 환자를 치료하는 조직이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관이라 강조한다. 따라서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 임신과 분만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장애인, 주치의를 구하고 싶은 장애인, 건강검진을 받는 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그리고 각종 보건의료에 관한 정보나 교육을 원하는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가족이 인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홈페이지나 전화로 연락하면 성심성의껏 도움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재 우리 센터는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공동으로 장애인 보건의료 실태에 대한 자료 확보와 연구에 착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 인천의료원, 인하대병원, 경인재활의료센터 등과 함께 장애인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연구 결과를 기초로 ‘인천 장애인을 위한 건강지도(Health map for person with disability)’를 개발해 인천지역 장애인들의 보건과 건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한영 센터장은 인천 지역 내에서 장애인 보건의료 인프라가 비교적 뒤쳐진 지역에 더욱 관심을 두고 찾아갈 것이며, 궁극적으로 인천 전 지역의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의 차별 없이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영화 〈본투비블루〉와 〈모베터블루스〉 깊은 가을, 재즈와 ‘블루즈’

재즈는 거실 문을 열고 커튼을 걷어내고 소파에 몸을 묻고 창문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즐기는 편안함이다.
깊어가는 가을, 재즈를 주제로 한 영화 두 편을 감상하며 재즈가 선사하는 자유로움을 즐겨보자.

재즈는 일상의 먼지를 씻어준다

—아트 블래키—

재즈란 음악 속에 구현된 민주주의

깊어가는 가을, 재즈를 주제로 한 영화를 소개하려 한다. 재즈의 기원은 17세기 미국 남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령 루이지애나에서 유럽인과 아프리카계 흑인의 혼혈인 크레올(Creole)들은 백인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았다. 그들은 유럽의 음악을 배워 연주를 즐

겼다. 루이지애나가 미국으로 넘어간 뒤 크레올은 노예 취급을 받게 된다. 그들의 음악적 유산은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사는 노예들의 노동요와 합쳐진다. 이들의 우울한 정서는 장음계에서 3도음과 7도음을 반음 낮춘 음계(블루노트라 부른다)를 특징으로 하는 블루스라는 음악으로 나타난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흩어진 흑인 군악대, 고된 삶의 충식을 축하하는 흥겨운 흑인 장례식 밴드, 엃박자가 특장인 흥등가의 래그타임이 흑인 영가와 블루스와 점



셋이 재기 오디션에서 〈My funny valentine〉을 연주하는 장면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이다. 쳇베이커가 노래하고 연주하는 이 곡을 어떤 이는 '20세기 가장 아름다운 흐느낌'이라 표현하고, 어떤 이는 '악마가 부른 천사의 노래'라고 표현한다. 쳇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죽어가는 가시나무새 같은 삶을 택한다.

차 합류하면서 어우러져 드디어 20세기 초 뉴올리언스에서 재즈라는 음악이 태어났다. 1910년대 미국의 호황과 함께 우울한 재즈에 쾌활한 스윙이 들어가면서 빅밴드 시대가 열린다. 트럼펫, 트롬본 같은 금관악기가 앞장선 빅밴드는 파티와 무드와 춤을 위한 음악이다. 베니 굿맨 밴드의 〈Sing Sing Sing〉이나 글렌 밀러 밴드의 〈Moonlight Serenade〉가 이 시대를 대표한다.

1940년대가 되자 뛰어난 연주자들이 빅밴드에서 뛰쳐나온다. 그들은 오늘날 랩 배틀처럼 서로 기교를 겨루는 비밥(be-bop)이라는 형식을 만들어 대중의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드럼이 비트를, 베이스가 리듬을, 피아노가 코드를 펼쳐주면 호넷, 트럼펫, 색소폰 등이 한껏 기교를 뽐낸다. 악보 없는 '즉흥연주(improvision)'와 자유롭게 기교를 겨루는 '잼(Jam)'은 재즈의 전통으로 자리잡는다. 찰리 파커, 디지 길레스피 등이 이 시대의 대표 연주자들이다. 재즈 애호가인 클린트 이스트우드 는 이 시대에 대한 경외로 찰리 파커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버드〉를 만들었다.

1950년대부터 재즈는 다양하게 분화한다. 마일즈 데이비스의 절제되고 정적인 쿨재즈(cool Jazz)가 나타나고,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백인 연주자들이 이것에 무드를 가미한 '웨스트코스트(west coast) 재즈'로 발전시킨다. 시카고와 뉴욕 등 동쪽에서는 비밥 전통에 충실한 하드밥(Hard Bop)이라는 사조가 형성된다. 비밥보다 안정적이고 구조적이며 내적인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드밥의 대표 연주자는 존 콜트레인이다. 개인적 견해이지만 재즈를 클래식에 비교하면 빅밴드는 스트라우스, 비밥은 바흐, 쿨재즈는 모차르트, 웨스트코스트는 쇼팽, 하드밥은 베토벤과 같다. 재즈는 1950년대 말부터 빌 헤일리, 엘비스 프레슬리

의 로큰롤과 힘겨운 경쟁을 한다. 비틀즈의 등장으로 재즈는 대중음악으로서의 사양길에 접어든다. 재즈가 클래식과 다른 점은 자유로움과 즉흥성이다. 클래식이 설계도를 따라 정밀하게 구축해낸 건축물의 경건한 감동이라면, 재즈는 거실 문을 열고 커튼을 걷어내고 소파에 몸을 묻고 창문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즐기는 편안함이다. 팝과 다른 점은 섞임이다. 팝이 맛있는 재료들이 채소와 양념으로 어우러진 부대찌개와 같다면 재즈는 재료를 하나씩 넣어 먹는 샤브샤브 같다. 악기를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즐기는 데 재즈의 묘미가 있다. 피아노, 베이스, 드럼이 대화와 논쟁을 하는 트리오, 여기에 트럼펫이나 색소폰이 하나 들어가 균형을 잡아주는 쿼텟, 두 관악기가 자음을 겨루는 콰텟... 악기 하나가 첨가될 때마다 풍성한 음의 향연이 벌어진다. 윈튼 마살리스는 재즈란 '음악 속에 구현된 민주주의'라고 했다. 보컬이 주인공인 팝과 달리 재즈에서 보컬도 하나의 악기이다.

쳇 베이커 이야기를 다룬 〈본투비블루〉

영화 〈본투비블루(Born to Be Blue)〉는 웨스트코스트 재즈의 대표 연주자 쳇 베이커에 대한 이야기다. 오클라호마 출신의 쳇은 군악대를 거쳐 미국 서부에서 프로 연주자가 된다. 1952년 찰리 파커에게 발탁되고 게리 멀리건 4중주단에서 주목을 받아 독주가의 길에 들어선다. 재즈 연주자로서 드물게 보컬도 가능했는데, 처음 듣는 사람들은 여성으로 착각할 정도로 미성이었다. '재즈계의 제임스 딘'이라 불릴 정도의 외모까지 겸비해 재즈계의 아이돌로 불렸던 쳇은 안타깝게도 1950년 후반 마약에 빠진다.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레코드 회사도 그를 포기하기에 이른다. 영화 〈본투비블루(Born to Be Blue)〉는 이 시기의 쳇 베이커

를 다룬다.

첵 베이커 역은 <죽은 시인의 사회>, <가타카>의 에단 호크가 맡았다. 나이지리아계 영국 배우 카르멘 에조고가 재기하려는 첵을 보살피는 제인 일레인을 연기한다. 영화는 1966년 마약 소지 혐의로 이탈리아에 수감되어 있는 첵 베이커의 모습에서 시작한다. 한 영화사가 그의 전기 영화를 찍기 위해 석방을 주선하고 첵은 귀국한다. 영화를 촬영하며 재기를 모색하던 중 그는 폭력배들에게 폭행을 당한다. 앞니가 모두 부러져 트럼펫 주자의 희망을 잃게 된다. 깊은 나락에 빠진 첵을 보살피준 것은 여배우 제인이다. 그녀의 보살핌 속에 첵은 음악적 열정을 되살리고 부상의 한계를 딛고 재기 오디션에 선다.

첵이 재기 오디션에서 <My funny valentine>을 부르는 장면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다. 재즈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한 번쯤 들어봤을직한 이 노래는 처음부터 눈과 귀를 뿔 수 없게 만든다. 어떤 이는 ‘20세기 가장 아름다운 흐느낌’이라 표현하고, 어떤 이는 첵의 타락한 삶을 대조해 ‘악마가 부른 천사의 노래’라 말한 이 아름다운 노래의 보컬과 트럼펫 솔로는 정지시키고 온 마음을 빨아들인다. 첵은 뉴욕 무대의 복귀에 성공하지만 복귀 무대의 압박감에 자신과 제인의 모든 노력을 저버리고 다시 악에 손댄다. 숨막히게 아름다운 <I’ve never been in love before>을 부르는 첵의 모습을 보면서 제인은 조용히 떠난다. 실제 첵 베이커는 그 후 유럽에서 활동하던 중 198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숙소 2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켈트 전설에 가시나무새는 일생 단 한 번 날카로운 가시에 스스로 가슴을 찌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소리보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죽어간다고 한다. 첵 베이커는 그런 삶을 택했다.

재즈에 바치는 헌사, <모베터블루스>

<모베터블루스(Mo' Better Blues)>는 <폭바로 살아라>, <말콤 X> 같은 미국 흑인 사회의 갈등과 문화를 다룬 수작 영화를 만들어온 스파이크 리가 재즈 뮤지션이었던 아버지와 그 동료들을 기리며 만든 영화다. 인종 차별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던 1960년대, 재즈 뮤지션은 흑인이 명예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이었다. 많은 재즈 뮤지션이 폄 나는 슈트를 입고 싶어 트럼펫이나 색소폰을 잡았다. <모베터블루스>는 그런 시대에 재즈 뮤지션으로 키워져 열정을 바친 트럼펫 연주자 블릭의 삶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블릭 역에는 인종을 초월해 사랑받는 배우 덴젤 워싱턴이 열연한다. <자유의 절규>, <말콤X>의 자유 운동가 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2002년 <트레이닝



피아노, 베이스, 드럼이 대화하는 가운데 두 관악기가 들어가 호각을 겨루는 쿼텟. 악기 하나가 첨가 됨에 따라 풍성해지는 음의 향연이 벌어진다. 윈튼 마샬리스는 재즈를 음악 속에 구현 된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다. <모베터블루스>의 블릭(덴젤 워싱턴) 쿼텟에서는 블릭의 트럼펫과 새도우(웨슬리 스나입스)의 색소폰이 치열한 경합을 보인다.

데이>로 시드니 포이티어 이후 39년 만에 흑인배우로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명우이다. 블릭의 경쟁자 새도우는 웨슬리 스나입스가 맡았으며 블릭을 나락에 빠뜨리는 친구 자이언트는 감독 스파이크 리가 직접 맡았다. 어머니의 훈육으로 트럼펫을 배운 블릭은 재능 있는 연주자로 성장한다. 최고의 재즈만이 삶의 목표인 그는 자신의 쿼텟을 구성하여 인기 절정에 오른다. 그러나 색소폰을 부는 새도우와 경쟁이 과열되고 팀 내 불화가 찾아진다. 게다가 절친이자 매니저인 자이언트는 상술 도박으로 블릭을 곤경에 빠뜨린다. 자이언트 때문에 집단 폭행에 말려든 블릭은 입에 심한 부상을 당하고 연주 활동을 포기하게 된다.

<모베터블루스>는 재즈에 바치는 헌사다. 곳곳에 오마주가 가득 차 있다. 블릭이 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엔딩에 비친 큼지막한 존 콜트레인의 <A l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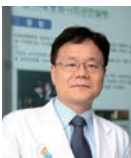


상단 좌측 첫번째 앨범은 첵 베이커의 미성이 담긴 앨범이다. 두번째 앨범은 재즈 피아노 트리오의 교본이라 불리는 빌 에반스 트리오의 <Waltz for Debbie>이다. 세번째는 스탠 게츠의 명곡 <Girl from Ipanema>가 담긴 보사노바 재즈이다. 이들은 재즈 입문자들에게 적당한 웨스트코스트 재즈 앨범들이다. 하단 좌측 첫번째는 <모베터블루스> OST이다. 마일즈 데이비스의 <Kind of Blue>와 영화에서도 오마주되는 존 콜트레인의 <A Love Supreme>은 역대 재즈 앨범 순위에서 1,2위를 다투는, 골수 팬들이 사랑하는 쿼텟재즈와 하드밥 앨범들이다. 대부분의 곡들은 유튜브에서도 들을 수 있다.

supreme> 앨범의 벽 포스터는 감독이 하드밥 시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보여준다. OST는 브랜포드 마샬리스 쿼텟이 담당한다. 얼마 전 코로나로 사망한 그는 동생 윈튼 마샬리스와 함께 현대 재즈계에서 고전적인 하드밥 시대의 재즈를 재현하려 애쓴 인물이다. 대표곡은 영화 제목과 같은 <Mo' Better Blues>이다. 영화에서 블릭이 청중들에게 ‘블루스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한마디 던지며 시작하는 이 곡은 객원 주자 테렌스 블랜차드가 트럼펫을, 브랜포드 마샬리스가 색소폰을 연주하여 재즈와 블루스의 맛을 흠뻑 느낄 수 있다. 여배우 신다 윌리엄스가 ‘남자의 마음은 알 수 없다’며 미성으로 읊조리는 <Harlem Blues>도 감각적인 색소폰 솔로와 결합해 ‘소울’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두 영화 제목에는 <블루스>가 들어간다. 보통 ‘우울’이라고 번역하지만, 한국인에게 ‘恨’을 ‘원한’이나 ‘후회’냐고 물으면 ‘글쎄요’ 하고 고개를 가로젓듯 블루스도 그렇게 단순한 정서가 아니다. 현지인들은 ‘블루-즈 [blu:z]’라고 발음하며 ‘블루-지(blusy)’하다거나 ‘블루-즈를 가졌다(having blues)’라는 표현을 즐겨 쓴

다. 거원의 뮤지컬 <포기와 베스>에는 지독하게 가난한 흑인 어촌 마을에서 가난에 지친 젊은 엄마가 아기에게 이런 노래를 불러주는 장면이 나온다. “여름날, 삶은 쉽게 흘러가네. 고기는 펄떡거리고 목화는 잘 자라네. 네 아버지는 부자고 네 어머니는 이쁘지. 그러니 쉬, 아가야. 울지 마렴”. <서머타임>이라는 노래다. 이런 것이 ‘블루-즈’다. 마라톤에서 고통의 20km가 넘어가면 ‘러너즈 하이’가 생기듯, 삶의 고통과 자기 연민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력 같은 그 무엇이 ‘블루-즈’다. 그 속에서 3도음과 7도음을 반음 낮춘 독특한 음악, 재즈가 탄생했다. 좀 블루-지하거나(Born to be blue), 블루-즈를 좀 안다면(Mo' Better Blues) 이번 가을에는 재즈에 입문해보기 바란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깊은 가을 두 영화속 재즈 음악 속에 몸과 마음을 맡겨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다.



송준호 교수는 인하대병원 신장내과 과장으로 미국과 유럽 교과서에 챔터 저술을 한 국제적 투석 치료 분야 전문가이다. 본지에 매회 2편의 주옥같은 영화를 선별해 소개한다.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표고버섯 만찬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의 전구체인 에르고스테롤(ergosterol)이 풍부한데 이는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춰주는 작용을 한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표고버섯을 활용한 레시피로 건강을 챙기자.

자료 제공 영양팀 사진백가맹(스튜디오100)
요리&스타일링 박정윤(노하우스)

구운 양파와 표고버섯찜

재료(2인 기준) 양파(1개) 150g, 유부(1장) 30g, 생 표고버섯(큰 것 4장) 40g, 식용유 1작은술, 흰 후춧가루 약간, 다시마물 1/2컵, 맛술 1큰술, 소금 1미니술, 간장 3+1/2 작은술

만들기 ❶ 양파는 밑동을 남기고 겹질을 벗겨 오븐(또는 에어프라이어)에서 향이 나도록 구워 4쪽으로 나눈다. ❷ 유부는 끓는 물에 담갔다가 삼각형으로 썬다. ❸ 표고버섯은 씻어서 기둥을 떼어내고 오븐(또는 에어프라이어)에서 살짝 굵는다. ❹ 냄비에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를 넣어 가볍게 볶다가 표고버섯을 넣어 살짝 볶는다. ❺ ❹에 유부와 흰 후춧가루를 넣고 다시마물, 맛술, 소금, 간장을 넣고 중간 불에서 약 15분간 충분히 무를 때까지 끓인다.

표고버섯 생강조림

재료(2인 기준) 말린 표고버섯 40g, 채 썬 다시마 20g, 표고버섯 불린 물 150g, 생강(다진 것) 약간, 간장 1큰술, 설탕 1작은술

만들기 ❶ 말린 표고버섯은 물에 불려서 네 토막으로 자른다. ❷ 다시마는 10분 정도 물에 담갔다가 씻어서 먹기 좋게 썰어 놓는다. ❸ 냄비에 버섯 불린 물과 생강 다진 것을 넣고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❶과 ❷, 간장, 설탕을 넣고 약한 불에서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조린다.

More Tip 서둘러 조리해야 한다면 미지근한 물에 말린 표고버섯과 설탕을 한 주먹 넣고 전자레인지에서 2분 가열하면 빨리 불릴 수 있다.



〈계절밥상〉의 〈표고버섯 생강조림〉은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인허대병원 유튜브 채널로 이동합니다.

More Tip

표고버섯 보관·손질법

- 보관법 생 표고버섯은 수분 유지를 위해 밀봉하여 냉장 보관한다. 말린 표고버섯은 상온 혹은 냉동 보관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 손질법 생 표고버섯은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고, 말린 표고버섯은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불려서 조리에 사용한다.

표고버섯에 들어 있는 렌티난(lentinan)은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동맥경화 예방, 고혈압 치료와 예방, 항암·항종양 물질로 알려져 면역력 증가를 돕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 개발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예술 같은 마르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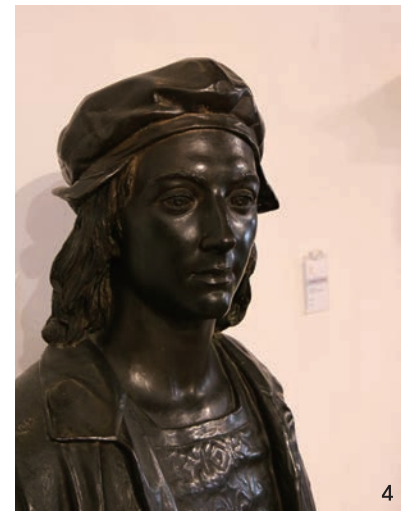
낮선 지명은 그 자체로 여행의 동기이자 목적이 된다.
마르케로 떠나기 전, 긴 장화를 닮은 이탈리아의 지형에서 허리띠에 위치했다는
사실 말고는 아는 게 거의 없었다. 미지의 데스티네이션에서 만난 예술 같은 순간들.



이탈리아 여행의 첫 목적지로 보통 로마를 떠올린다. 트렌드와 패션에 관심이 많은 이는 밀라노로 먼저 향하기도 한다. 낯선 느낌에 좀 더 심취하고 싶은 이는 아예 북쪽이나 남쪽으로 향한다. 피렌체를 품은 토스카나, 베네치아가 있는 베네토를 비롯해 나폴리가 있는 캄파냐, 시칠리아가 대개 그런 여행자를 반긴다. 마르케Marche는 처음 듣는 지명이었다. 처음 들었을 땐 불어로 시장이라는 뜻을 가진 '마르쉐'랑 혼동한 걸까? 싶었다. 이탈리아 중부 아드리아해 연안에 있는 주.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마르케를 치면 가장 먼저 이런 안내가 나온다. 낯선 곳을 쉽게 설명하길 좋아하는, 이미 다녀온 이들은 마르케를 한국의 강원도에 빗댄다. 바다와 산이라는 휴가지로서의 '자원'을 풍부하게 가졌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놀고 먹고 즐기는 데 일가견이 있는 이탈리아인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다. 여유가 좀 있는 이들은 별장을 두고 자주 오간다. 주도는 안코나Ancona. 로마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안코나에 닿으면 여행자들은 제각기 자신의 목적지로 향한다. 나의 첫 행선지는 우르비노Urbino다.

라파엘로의 도시, 우르비노

보통 여행지를 찾기 전에 짧은 공부를 한다. 마르케는 그루틴을 지키기에 다소 곤혹스러운 도시였다. 자료가 별로 없어서, 그럴 땐 가서 부딪힌다. 우르비노를 찾기 전 내가 가진 사전 정보는 '라파엘로'뿐이었다. 라파엘로 산치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함께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



- 1 — 두칼레 궁전에서 바라본 우르비노 시가지.
- 2·3·5 —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 라파엘로가 유년기를 보낸 집.
- 4 — 아름다운 외모로 유명했던 라파엘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조각상.



여행작가 류진은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매거진「더 트래블러」, 패션 매거진「코스모폴리탄」 등에서 일하며 42개국 200여 개 도시를 여행했다. 유행의 흐름을 붙잡아 소개하는 일을 하다가 지치면 야생의 대자연으로 도망친다. 자연과 도시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며 사는 삶을 글로 쓴다.

장으로 불리는 화가. 우르비노는 라파엘로의 고향이다. 관광객들은 대부분 그의 흔적과 자취가 고스란히 남은 유산을 보기 위해 우르비노를 찾는다. 라파엘로 생가Casa di Raffaello는 그가 1483년에 태어나 11살까지 살았던 집. 중정을 품은 3층짜리 저택엔 그가 태어난 방, 궁정화가였던 아버지 지오반노 산티에게 그림을 배웠던 방, 화구를 놓았던 자리들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생가엔 그의 삶의 흔적과 함께 작품들도 있다. 젓가슴을 다 내놓은 여인의 초상 <라 포르나리나>(1519년)도 유명한 작품. “라 포르나리나는 ‘빵집 딸’이라는 뜻이에요. 마르게리타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의 초상인데, 이 여인이 5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라파엘로의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미술계가 발칵 뒤집혔죠. 그의 스승의 연인이었거든요.” 스승과 교황청의 눈을 피해 마르게리타와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눴던 라파엘로는 그 뜨겁고 위험한 사랑 때문에 결국 서른일곱의 나이로 요절했다. 생전 라파엘로의 얼굴에 직접 본을 떠서 만든 그의 흉상 앞에서 사랑에 모든 걸 던진 한 남자의 인생을 가만히 상상했다.

라파엘로와 함께 우르비노를 대표하는 이름이 또 있다. 1998년 유네스



6·7 — 우르비노 구시가지는 중세 시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도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두칼레 궁전.

8·9 — 우르비노의 한적한 뒷골목에서 만날 수 있는 풍경.

10·11 — 두칼레 궁전. 마르케국립미술관이 된 궁전 안쪽에선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구시가지에 위치한 두칼레 궁전Palazzo Ducale은 우르비노가 르네상스 시대의 전성기를 이끈 도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다. “두칼레 궁전은 르네상스 초기에 지어진 궁전 중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시의 영주 페데리코 다 몬테펠트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이죠. 그는 궁을 하나의 이상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피렌체에서 온 건축가 루치아노 라우라나, 프란체스코 디 조르조 마르티니가 그 꿈을 도면 위에 구현했다. 지금은 마르케 국립미술관 Galleria Nazionale delle Marche이 된 궁전 안에선 라파엘로의 <귀부인의 초상>,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걸작 <세니갈리아의 성모> 등 르네상스의 걸작들을 만난다.

궁 바깥으로 나오면 300~400년 전에 지어진 중세의 오래된 집들이 정겹게 모인 거리가 나타난다. 창을 열고 빨래를 너는 노인, 게으른 걸음으로 어슬렁거리는 고양이들이 골목의 주인이다. 몇 세기 전과 다름없는 풍경 안에 들어서서 묘한 기분이 들었다. 라파엘로와 마르게리타가 스승의 눈을 피해 이 길을 함께 산책하지 않았을까? 그런 낭만적인 장면들을 몇대로 그려보며 천천히 골목 위를 걸었다.





12

음악에 취해, 페사로

페사로Pesaro는 우르비노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소도시다. 라파엘로의 우르비노처럼 이 도시에도 따라붙은 이름이 있다. 최고의 희극 오페라로 손꼽히는 〈세비야의 이발사〉를 작곡한 남자, 로시니 얘기다. 1792년에 태어난 로시니가 이 도시에 산 건 12년 남짓이지만 그의 이름을 빼고 페사로를 논할 수 없다. 모차르트의 잘츠부르크, 바그너의 바이로이트와 함께 페사로 역시 음악가의 이름을 딴 축제가 도시를 대표한다. 매년 8월 로시니 극장 Teatro Rossini에서 열리는 ‘로시니 오페라 페스티벌Rossini Opera Festival’ 기간엔 인구 10만의 이 작은 도시에 전 세계 오페라 팬들이 모여든다.

로시니 극장 말고도 도시 곳곳에 그의 자취가 흩어져 있다. 지방 극장의 트럼펫 주자였던 아버지와 성악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외할머니와 함께 자랐던 로시니의 생가, 1882년 로시니의 유산으로 세운 음악학교 로시니 음악원Conservatorio di Musica, 로시니 박물관Museo Rossini 등이 오페라 팬들의 눈길을 이끈다. 운이 좋으면 음악원 학생들의 연주를 버스킹처럼 들을 수 있다. 학교 교실에서 흘러나오는 연주 소리, 로시니의 얼굴이 그려진 포스터 등으로 가득한 시내를 걷다 보면 발걸음에 절로 흥이 붙는다.

예술에 심취하느라 텅 빈 위장에도 ‘흥’이 필요하다면 두 시간 거리의 아스콜리피체노Ascoli Piceno로 향하자. “고작 먹을 거 하나 때문에 두 시간을 달려가야 한다는 거야?”라고 묻는다면 단호히 “예”라고 답하겠다. 여기에서 ‘아스콜라나 올리브 튀김’이 탄생했다. 이름 그대로 올리브를 튀겨 낸 음식이다. 그냥 올리브가 아니라 알 굵기로 유명한 아스콜리산 올리브의 속을 파고 그 안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가슴살, 프로슈토, 제철 채소와 토마토, 파슬리, 레몬 껍질, 육두구, 후추 등을 버무린 소로 딱딱 채운 후 바삭하게 튀겨 낸 것이 바로 ‘아스콜라나 올리브 튀김’이다. 여기에 이탈리아 맥주 비라 모레티 한 병 곁들이면 금상첨화. “이 음식은 로마 시대 때부터 전해졌어요. 가난한 서민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올리브에 저장고 속 남은 식재료를 섞어서 튀겨 먹은 것이 유래지요. 아스콜리피체노는 마르케주 안에서도 해가 뜨겁고 공기가 건조해서 올리브가 맛있기로 유명하거든요.” 허겁지겁 허기를 채우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가이드가 부지런히 설명을 이어간다.

음악과 미술로 마음을, 아스콜라나 올리브 튀김으로 영혼을 살찌우고 아링고 광장Piazza del Arringo으로 향했다. 대성당 안에 르네상스 화가 카를로 크리벨리의 폴립티크화가 있으니 꼭 보고 가라는 가이드의 당부가 있었지만, 그냥 지나친 후 광장 한쪽 그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탈리아를 여행할 때마다 항상 ‘이 나라 사람들은 어쩔 이렇게 인생을 신나게 즐길까?’ 하고 궁금했는데 마르케에서 그 답을 어렵잖이 찾은 기분이다. 안 되는 걸 즐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 그냥 몸과 영혼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득한 데서 태어나 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17

12-14 — 로시니 오페라 페스티벌이 열리는 로시니 극장.

13-15-16 — 로시니의 유산으로 세운 음악학교, 로시니 음악원 안팎의 풍경들. ‘음악의 도시’ 페사로의 진수를 느끼고 싶다면 음악원 앞을 서성이면 된다.

17 — 아스콜리 피체노의 중심, 아링고 광장.

18 — 르네상스 시대의 유산, 산테미디오 대성당.

19-20 — 아스콜리 피체노에 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아스콜라나 올리브 튀김’. 중세 시대의 모습을 재현한 전통 식당에서 맛볼 수 있다.

21 — 아링고 광장에서 게으른 낮을 즐기는 로컬을 쉽게 만날 수 있다.



13



14



15



16



18



19



20



21

친절한 인하인을 소개합니다

인하대병원엔 환자, 보호자에게 칭찬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칭찬 직원'을 선정합니다. 올 4월부터 6월까지 칭찬 직원으로 선정된 <친절한 인하인>을 소개합니다(소속은 수상 시점 기준).

4월



최수란 교수(산부인과)

칭찬합니다! 초산으로 어찌할 바 모르던 저에게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친절이 느껴지고,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상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상은 제가 받았지만 분만실에서 늘 같이 해주시는 전공의들, 간호사들, 또 여사님들과 함께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분만실 식구들 고맙습니다.

6월



신윤정 간호사(입원간호 4팀_분만실)

칭찬합니다! 항상 친절하게 말씀해주시고 간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에도 성실히 답변해주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씨 최고!

고맙습니다! 평생에 몇 번 없을 임신 기간이 산모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더 따뜻한 마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

6월



강효주 간호사(입원간호 3팀_서9병동)

칭찬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환자를 대하는 모습에 감명 받았습니다. 병원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귀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든 치료 과정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6월



입원간호 4팀(동 8병동)

칭찬합니다! 병동 전체 간호사들이 환자가 요청하기 전에 알아서 의류나 이부자리 등을 다 알아주어 정말 감사하고, 환자들에게도 친절하게 잘 대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심 없이 일하면서 힘들 때도 많지만 이런 칭찬과 격려의 한마디는 저희에게 더 큰 힘을 줍니다. 앞으로도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NHA, PEOPLE

당신의 건강을 귀하게

인하대병원은 신처럼 우직하게 같은 자리를 지키며
당신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용윤리위원회 연명의료상담실

삶의 아름다운 맺음에 대해 사유할 시간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교수

공용윤리위원회
국가사업 전담인력
신주희 간호사

입원외과학과 중환자의학
김아진 교수

송숙녀 연명의료
코디네이터

故박경리 선생은 그의 시집 제목처럼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흥가분하다』고 했지만 삶의 맺음이 어디 흥가분하기만 할까.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 및 임종 과정 환자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로 제공하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함으로써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공용윤리위원회 연명의료상담실 사람들의 이야기기를 들으며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인천권역 공용윤리위원회가 되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이를 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 전국 권역별 12개 의료기관에서 공용윤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인하대병원도 인천 권역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설명회 등을 열어 꾸준히 홍보해왔고, 그 결과 2019년 9월 인천 권역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운영 중이다.

공용윤리위원회 위원도 현재 인하대병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구성과 동일하며, 이문희 위원장을 포함해 각 진료과 과장 및 간호본부장, 법무팀장, 신부, 목사 등 외부위원까지 총 15인으로 구성된다.

공용윤리위원회는 주로 타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위탁한 윤리위원회 업무를 수행한다. 연명의료 관련 환자, 가족,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 연명의료 관련 환자나 환자가족 대상 상담, 의료기관 내 종사자 대상 의료윤리 교육을 시행하고 기타 연명의료 관련 통계분석, 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인하대병원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갖춘 것으로 간주되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 안에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인하대병원과 위탁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비에스종합병원, 인천기독병원, 인천적십자병원, 고은요양병원, 봄날요양병원, 송도하나요양병원, 인천드림요양병원, 인일요양병원, 천진요양병원 등 총 9개 기관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두 가지다. 이 서식은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작성이 가능하다. 인하대병원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갖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이며, 2021년 9월부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용윤리위원회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

인하대병원은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된 뒤 홍보와 제도 정착 관련 교육 등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겹친 상황에서도 인천 권역 9개 기관 협약 유지에 성공했으며, 이후 지속 협약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20년 10월에는 이문희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20년 12월에는 인천 권역 9개 위탁협약기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윤리위원회 이문희 위원장, 김아진 부위원장, 송숙녀 연명의료코디네이터, 신주희 공용윤리위원회 전담간호사가 참석하여 인천 권역 위탁협약기관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는 데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논의하고 개선의견을 나누며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진행한 간담회에는 9개 위탁협약기관의 의료진과 담당자,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센터장을 비롯하여 총 3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제도 접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론하고 인하대병원의 정착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제도에 따른 향후 발전방향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현실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인하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현재 위탁을 맺고 있는 기관들이 올바르게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문 교육과 온라인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소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면서 각 기관들과 소통하여 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와 위탁을 맺은 기관에 안내하여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하대병원은 원내 홍보 행사로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 매년 ‘호스피스·연명의료 바로알기’ 캠페인을 개최하며, 이 캠페인을 통해 제도를 보다 널리 알릴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이문희 위원장은 앞으로 목표에 대해 “현장에서 연명의료 결정법 관련 일을 하다 보면 제도상 현실과 동떨어진 점이 있다. 이를 보완 수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2018년 2월 법이 시행되어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환자나 가족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곳에 근무하는 의료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연명의료 윤리위원장·인천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교수
연명의료 결정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연명의료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위탁협약기관의 의료진 교육, 윤리위원회 미설치 기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 지역 내 상호연계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잘 자리 잡도록 지원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명의료 윤리위원회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소아청소년과 교수님이 윤리위원회 심의를 의뢰한 사례입니다. 생후 1개월 된 여아가 외상성 뇌출혈 및 뇌경색으로 호흡부전과 뇌사가 추정되며 임종 과정으로 진행되는 경우였는데,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부모가 자식의 연명의료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친권자인 부모에게 결정 권한이 있지만 윤리적 측면에서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모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며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할 수 있을지가 이슈였습니다. 담당 의료진이 심의신청을 넣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여러 선생님이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목사님과 법무팀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주의의가 합당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잘 수행했던 일로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내포합니다. 치유되지 않는 질병을 가진 환자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 고민해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죽음에 맞서 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 삶을 마무리해야 하는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더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 아닐까요.



공용윤리위원회 부위원장·입원의학과
중환자의학 김아진 교수
환자와 의료진 사이
‘신뢰’가 중요해요

공용윤리위원회 업무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작게는 환자 개인에 대한 고려이고, 넓게는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입니다. 우리나라는 정서상 가족이 환자에게 병의 상태를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임종기까지 환자 본인이 질환이나 그 깊어진 정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자는 이미 임종기임을 직감할 때가 많습니다. 의료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가족에게 허락을 구하고 환자에게 현재 상태와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에 관한 것을 직접 말씀드리면 알고 있었다는 듯 스스로 원하는 치료를 결정하는 모습을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환자와 가족 모두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치료가 길어지는 것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혹여 치료가 길어질 것을 염려해 치료 시작조차 망설인다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료진들은 최선의 치료를 제공할 것이고,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환자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환자와 가족에게 치료 유보나 중단을 상의하기 때문입니다.

연명의료중단결정제도가 도입된 직후에는 법제도와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지만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어 제도 이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의료진들은 윤리의 본질적 측면을 숙고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원내에서 사례를 찾아내고 관련 의료진들이 함께 생각하고 논의할 방법을 개발할 것입니다.



연명의료 코디네이터 송숙녀
‘좋은 죽음과 돌봄’ 과정에
함께하며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이별을 앞에 둔 가족은 상황을 받아들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의료진은 환자의 가족을 지지하고 법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설명합니다. 결국 가족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대신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선택을 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 상담 과정에서 장기를 기증하여 많은 이들에게 삶의 새로운 희망을 전한 뜻 깊은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환자는 급격한 의식저하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었지만 담당 의사는 환자가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가족과 함께 연명의료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상담 결과 가족은 환자가 더 이상 무의미하게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서식을 작성하려고 환자의 상태를 리부하던 중 뇌사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장기기증을 예측하고 담당 의사와 장기이식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여 가족 상담을 연결했습니다. 가족은 환자의 장기기증을 결정했고, 다섯 명에게 소중한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주체가 자신임을 인식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한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하면 환자에게 무관심해지고 아무 돌봄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환자와 보호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연명의료 결정을 하더라도 통증 완화, 영양분, 물, 산소의 공급 등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의료는 지속해 제공하며, 의료진 또한 환자의 증상 조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공용윤리위원회 국가사업 전담인력 간호사 신주희
남은 시간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세요

인하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설치 및 적정 운영이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해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협약 기관은 9개 기관으로, 많은 의료기관과 위탁협약체결을 맺는 것보다 협약을 맺은 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잘 알고 올바르게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위탁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하는 환자와 가족은 많지 않습니다.

몇 달 전 한 기관의 요청으로 가족을 만나 상담하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환자의 의식은 명료하지 않았지만 예전부터 가족에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셨다는 배우자와 따님의 진술로 서식을 작성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셔서 가족 모두 무척 슬픈 상태에서도 아버님의 뜻을 존중하여 떨리는 손으로 진술 서식을 작성하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결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가족은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결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마음 아프지만 환자에게 헤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한 환자와 가족이 많습니다. 남은 시간 서로 아낌없이 사랑한다고 표현하시면서 아름다운 날들로 채워 가시길 바랍니다.

인천 도서 지역을 위한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심뇌혈관 건강 사수 작전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인천 도서 지역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위기에 닥친 인천 도서 지역의 심뇌혈관 건강을 사수하기 위해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심뇌혈관질환 취약지, 인천 도서 지역’

백령도, 연평도 등 인천 서해 원거리 도서 지역은 심뇌혈관질환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의 취약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천 도서 지역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심뇌

혈관질환에 경각심을 갖고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정보 교환 프로그램 ‘인하콜’ 구축에 힘써 보건지소와 권역센터의 긴밀한 진료 시스템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서 지역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서서히 무너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장기화되자 인천 도서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여건은 악화됐다. 도서 지역은 폐쇄적인 지역 특성상 코로나 발생 시 더욱 타격을 입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코로나19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조성됐다. 심뇌혈관질환자들은 인접 도시에서 받았던 외래진료를 중단하고 보건지소로 내원했고, 권역센터를 비롯한 외부기관들이 진행하는 주민 대상 심뇌혈관질환 교육 캠페인은 연기 혹은 잠정 중단됐다. 인천 도서 지역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심뇌혈관 건강 사수 작전:

주민 대상 비대면 건강 부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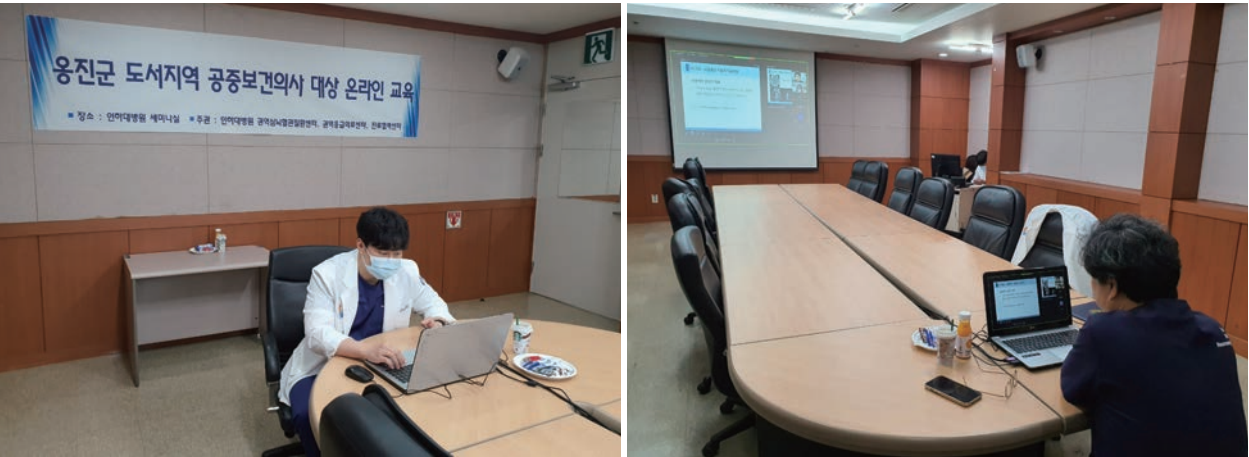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의 위기를 맞은 인천 도서 지역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권역센터는 도서지역의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2021년 4월부터 웅진군보건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8개 도서 지역 보건지소(대청보건지소, 덕적보건지소, 백령보건지소, 북도보건지소, 연평보건지소, 영흥보건지소, 자월보건지소, 장봉보건지소)에 직접 방문하여 비대면 건강부스 <심뇌혈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를 설치했다. 건강부스에는 심뇌혈관질환 교육 책자와 온라인 교육 안내지를 배치하여 비대면 정보·소통 창구를 마련하였다. 코로나19로 보건지소를 방문하는 도서 지역 주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 자료는 더욱 효과적으로 배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비대면 건강 부스를 통해 주민들의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향상되고 생활습관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심뇌혈관 건강 사수 작전2:

공중보건조사 대상 전문 인력 교육과 인하콜 활성화

도서 지역 보건지소의 역할이 커진 시점에서 공중보건의사 대상 전문 인력 교육과 인하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예년보다 많이 개최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월에는 현동근 뇌혈관센터장(신경외과)과 윤광석 교수(심장내과)가 웅진군 도서 지역 내 공중보건의사를 위한 온라인 심뇌혈관질환 교육을 실시했다.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는 도서 지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진단과 치료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 최초로 도입한 방사선 암 치료 장비

헬시온

인하대병원에는 최근 인천 최초로 방사선 암 치료 장비 ‘헬시온’을 도입했다. 방사선 유도 치료와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하는 헬시온에 대해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교수가 자세하게 알려준다.



해당 영상은 인하대병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헬시온 장비를 소개합니다

헬시온은 인천 최초로 도입한 방사선 암 치료 장비입니다. 인하대병원에서는 올 6월 초부터 가동 중인데요, 특징은 방사선 유도 치료를 할 수 있고,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하는 장비입니다. 모양은 CT처럼 생겼습니다. 이 치료 장비 안에 링이 있고 이 링 안에 CT와 치료 장비가 같이 붙어 있는데 이 링이 빠르게 돌면서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 일반 방사선 장비는 치료 시간이 20~30분 걸립니다. 하지만 헬시온 장비는 5분 정도면 방사선 치료를 마칠 수 있습니다. 헬시온은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에 특화된 장비입니다.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세기를 조절해서 종양에는 높은 양의 방사선 치료를 하고 주위 조직에는 최소한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정확한 치료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영상 유도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 안에 CT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CT를 이용해서 치료할 때마다 매번 환자 CT를 촬영합니다. CT 촬영 결과로 환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조절하고 그 위치에 정확하게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환자가 20~30분 동안 치료 기기에 누워 있어야 했기 때문에 환자가 불안해하고 또한 약간씩 움직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면 치료 범위가 벗어나거나 오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분 동안 빠르게 치료하면 그만큼 환자에게 편안하고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Q & A

헬시온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가 가장 궁금해하고, 진료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보편적인 질문과 답을 알아보았다.

헬시온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점은 빠르게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것은 물론 정확도 또한 높아서 환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빠르게 이뤄지기 때문에 환자의 움직임이나 환자의 불안 상태가 줄어들고 그만큼 정확하고 편안한 상태로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 중간에 헬시온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타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거나 다른 기계로 받는 중이라면 기존 병원에서 또는 기존 기계로 치료를 마치는 것을 권합니다. 방사선 치료는 각각 기계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하면 최소 방사선량이라든지 최고 방사선량의 혼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방사선 치료를 진행 중이라면 기존 치료 방법으로 마치는 것을 권합니다.

기존 방사선 치료와 비용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헬시온 방사선 치료는 기존의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비용과 동일하게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는 국민 건강보험에서 95%를 부담하고 환자는 5%만 부담하면 헬시온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시온 방사선 치료에 적용되는 질환과 조건을 알려주세요.

헬시온 방사선 치료는 기존 장비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방사선 치료가 적용되는 분야는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가 주된 치료이므로 두경부암, 뇌암, 폐암 또는 전립선암에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똑똑하게 챙기는 약 사용 설명서 ⑬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배뇨장애가 나타나는 전립선비대증은 50세 이상 남성에게 주로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면 요폐, 요로감염 등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제때 치료해야 한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에 대해 알아보자.

전립선비대증은 어떤 질환이며 왜 발생하나요?

전립선비대증은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배뇨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랫부분에 위치하여 요도를 감싸고 있는 남성의 생식기관인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요도를 압박하면 지연뇨(똥을 들 여야 소변이 나오는 현상), 단절뇨(소변의 흐름이 끊기는 현상) 증상이 나타나며, 절박뇨(강하고 갑작스러운 소변 배출 욕구), 빈뇨(소변을 자주 봄), 야간뇨(자다가 일어 나서 소변 봄) 등 과민성 방광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는 무엇이 있나요?

전립선비대증 치료는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 작용(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전립선에 혈액 공급을 늘리는 작용(포스포디에스테라제-5 (PDE5) 억제제),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거나 방광의 수축을 억제하는 작용(알파차단제)을 통해 배뇨장애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또 항콜린성 약물 등 과민성 방광 치료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는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경우에 따라 다른 계열의 약물을 두 가지 이상 동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립선비대증 치료약물 복용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알파차단제는 투여 초기 또는 용량을 증감할 때 어지러움, 머리가 무거운 느낌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위험이 따르는 기계 조작을 피해야 합니다. 또 고혈압 치료제나 혈관확장제와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현저하게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는 사정액 감소, 발기부전, 성욕 감퇴 등의 성기능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아나 여성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남자 태아에게 기형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임신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PDE5 억제제는 흉조, 두통, 근육통, 소화불량, 구역, 호흡기 감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발기부전 치료제, 일부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질산염 제제 등의 약물과 동시에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에 해당합니다.

인하대병원 처방 조제 가능 약국

용현동	약손약국	032-884-1886
주안1동	라성약국	032-831-6065
도화동	인임종로약국	032-875-0509
주안동	건강드림약국	032-433-5319
용현5동	현대메디칼약국	032-889-1891
송현동	백제약국	032-764-5747
송림동	종로약국	032-766-9301
	보명약국	032-762-3347
구래동	김포도담약국	031-987-5936
선학동	건강백세약국	032-813-2274
연수동	연수태평약국	032-818-7010
육련동	온누리현대약국	032-831-4822
	동의당약국	032-834-8274
송도동	신도시약국	032-851-7516
용종동	온누리건강백화점약국	032-545-1535
작전동	우리팜약국	032-551-7535
작전1동	유원약국	032-551-5650
항동7가	유한온누리약국	032-883-2600
운서동	영종대평양약국	032-746-1313
구월1동	이레약국	032-462-1851
구월동	구월메디칼약국	032-424-7425
구월4동	연세프라자약국	032-462-0392
부평6동	행복한온누리약국	032-503-9339
	유피마부평성모	032-505-2035
가좌동	메디팜성모약국	032-576-2028

인하대병원은 환자들과 가까운 곳에서 늘 함께합니다. 약에 대한 문의는 주간 032-890-3323, 3327, 야간 032-890-3315로 하시면 됩니다. 인하대병원 처방 조제 가능한 협력 약국은 032-890-3323, 332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16



관련자: 최윤석 외과 교수
언론사: 동아일보
주 제: 정교한 로봇 탈장수술로
위험요소 최소화

021. 4. 28



관련자: 고원진 소화기내과 교수
언론사: 경인일보
주 제: 삶의 질 떨어뜨리는
'식도이완불능증'

2021. 5. 12



관련자: 이로운 영상의학과 교수
언론사: 동아일보
주 제: 의료 음성 시술루선
도입으로 신속한 영상의학
검사 진행

2021. 5.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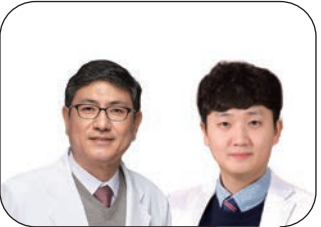
관련자: 이정진 방사선종양학과 방사선사
언론사: 헬스코리아뉴스
주 제: 제20회 미추홀학술대회
대상 수상

2021. 5.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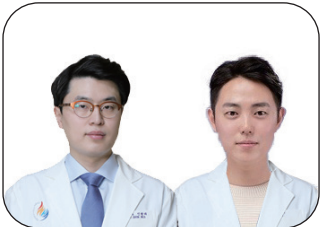
관련자: 김범수 정형외과 교수
언론사: KBS
주 제: 국내 첫 '3D 프린팅
발목뼈 치환술' 성공

2021. 5. 20



관련자: 강준순 정형외과 교수,
고상현 전공의
언론사: 보건타임즈
주 제: 유럽 골대사학회
동서양연구상 수상

2021. 6. 9



관련자: 신현태 피부과 교수,
이선복 전공의
언론사: 보건타임즈
주 제: 대한모발학회 학술대회 수상

2021. 6. 14



관련자: 백용수 심장내과 교수
언론사: 헬스조선
주 제: 대한부정맥학회
최우수 초록상 수상

2021. 7. 2



관련자: 김규성 이비인후과 교수
언론사: 메디컬투데이
주 제: 대한평형의학회
제12대 학회장 취임

2021. 7. 13



관련자: 윤희 신경외과 전공의
언론사: 의학신문
주 제: 대한신경손상학회
우수 발표상 수상

2021. 7. 13



관련자: 임준혁 호흡기내과 교수
언론사: 라포르시안
주 제: 대한폐암학회
젊은 연구자상 수상

1인 음압병실 늘려 감염병 치료 역량 업그레이드

인하대병원이 1인 음압병실을 늘려 감염병 치료 역량을 업그레이드했다. 인하대병원은 최근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을 기존 4병상에서 7병상으로 확충하고 격리 중환자실 13병상을 신설하는 등 1인 음압병실 확충 공사를 완료했다. 음압병실은 병실 내부의 병원체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하는 특수 격리병실을 말한다. 병실 내부의 공기압을 주변보다 낮춰 공기의 흐름이 항상 외부에서 병실 안쪽으로 흐르도록 하는 원리다. 바이러스나 균균으로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설계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환자나 의료진에게 필요한 맑은 공기는 급기구조 공급하고, 병실 공기는 강력한 HEPA 필터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걸러서 배기구로만 빼낸다. 인하대병원은 이번 병동 리모델링을 통해 감염병 대응형 시기에 지역 내 중증환자 병실 부족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인 최초 헬시온 3.0 방사선치료기 도입

인하대병원이 인천지역 최초로 최첨단 방사선치료기 헬시온(HALCYON 3.0)을 도입하고 6월부터 방사선종양학과에서 헬시온을 이용한 치료를 시작했다. 헬시온은 실시간 영상 유도를 기반으로 입체적 세기 조절 회전치료를 할 수 있는 최신 방사선치료기다. 이 장비로 두경부암과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을 포함한 대다수 종양을 치료할 수 있다. 특히 최신 버전의 헬시온 3.0 치료 시스템은 가장 진보한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치료 부위의 영상 획득 시간이 기존보다 4배 빠르고, 치료기 회전속도가 2배 빨라져 치료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한다는 점이다.

3인 美 유타대와 글로벌 의료혁신 생태계 조성 MOU 체결

인하대병원이 미국 유타대학교 의료혁신센터,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와 '글로벌 의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6월 1일 오전 인하대병원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인하대병원 김영모 병

원장, 유타대 그레고리 힐(Gregory Hill) 아시아캠퍼스 대표, 유타대 버나드 파슬(Bernhard Fassl) 의료혁신센터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유타대는 스타트업과 혁신, 경제 생산량 관련 각종 지표에서 글로벌 최상위 대학으로 꼽힌다. 의료혁신센터는 미국 대학 의료센터 중 서비스 품질 1위에 선정된 바 있으며, 아시아캠퍼스는 인천 송도에 위치하고 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생명과학과 의료기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해당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수요가 늘고 있는 생명과학과 의료기술 스타트업 분야의 성장 촉진에 노력할 예정이다.

4인 회귀질환 경기서북부권 거점센터, 제3회 회귀질환 심포지엄 성료

인하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회귀질환 경기서북부권 거점센터(질병관리청 지정)가 5월 28일 '제3회 회귀질환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심포지엄은 '터너증후군의 다학제적 관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터너증후군은 성염색체인 X염색체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유전 질환이다. 저신장증과 심장질환, 조기 폐경, 골격계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행사로 열렸다. 인하대병원 안승익 진료부원장의 축사로 시작해 여러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로 이어졌다.

5인 제1회 입원의학 심포지엄 성료

인하대병원이 지난 6월 3일 '제1회 입원의학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마쳤다. 인하대병원 입원의학 과가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입원의학에 대한 소개와 입원환자 진료 시 고려해야 할 사안, 의견 및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에는 인하대병원 관계자들만 자리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200여 명의 사전 등록자가 참가했다. 발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중증 고령 환자에 대한 주제로 채워졌으며, 입원 의학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2017년 전국 최초로 입원의학과를 설립하고 운영 5년 차를 맞이한 인하대병원은 앞으로 매년 1회 씩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6인 중구청과 '행복한 마을길 만들기' 행사 진행

인하대병원 직원들이 꽃길을 조성하며 병원 인근 주민들을 위한 행복한 마을길 만들기에 나섰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12일 인천 중구청과 함께 '행복한 마을길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병원 직원 70여 명과 가족이 함께 자원봉사 형식으로 아암대로(인하대병원 후문에서 수인선 송의역 방면) 약 70미터의 인도 주변에 꽃길을 조성했다. 이들은 꽃길 조성에 앞서 낙엽과 쓰레기 20포대를 치워 도로를 정비했으며, 사루비아 등 꽃 약 2천 주를 심고 화분도 만들어 비치했다. 앞으로 도시미관을 위해 지속적인 화단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7인 키르기스공화국 국립감염병원에 감염병 대응 노하우 전파

인하대병원이 키르기스공화국 국립감염병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1년 차 사업을 완료했다. 인하대병원은 6월 14~25일 키르기스공화국 국립감염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총 2명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와 대응에 대한 연수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연수는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11명으로 구성된 인하대병원 교수진이 준비한 16개 강의(공동강의 6개, 의사 심화강의 6개, 간호사 심화강의 4개)가 차례로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질의응답으로 각 연수 주제에 대해 활발히 소통했다. 또한 키르기스공화국과 국립감염병원의 감염병 관리현황을 분석하고 대응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도 진행했다.

8인 웅진군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실시

인하대병원이 인천광역시 웅진군 도서지역 내 공중보건의사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웅진군 도서지역 공중보건의사 온라인 교육'은 인하대병원 진료협력센터와 인천권역응급의료센터, 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주관해 진행했다.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을 위해 온라인 형식으로 마련됐다.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강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발현 시 대처 방안(응급의학

과 김정호 교수), 뇌졸중의 이해(신경외과 현동근 교수), 심근경색과 고혈압 약물(심장내과 윤광석 교수)로 구성해 공중보건의사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었다.

9인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영화로 보는 심뇌혈관질환 전시회' 개최

'2021년 영화로 보는 심뇌혈관질환 작품 전시회'가 8월 2일부터 9월 17일까지 인하대병원 등 인천지역 4곳에서 순환 개최된다.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유튜브 채널에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오프라인 전시회는 부평구청역 작은 갤러리(8월 2~31일), 원인재역(8월 23일~9월 5일), 인천시청 중앙홀(9월 6~10일), 인하대병원(9월 11~17일) 등 총 4곳에서 열린다. 온라인 전시회는 8월 2일부터 인하대병원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다. 전시 기간 동안 SNS 인증사진 이벤트도 진행한다. 개인 SNS 계정에 오프라인 전시회 사진이나 온라인 전시회 캡처 사진을 인하대병원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해시태그(#인하대병원인천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달고 업로드하면 참여할 수 있다.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한다.

10인 김포시와 대학병원 건립 업무협약 체결

인하대병원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내 최첨단 대학병원 건립을 추진한다.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과 인하대병원, 인하대학교, 김포시, 김포도시관리공사, (주)풍무역세권개발은 7월 30일 오전 김포시청 참여실에서 협약식을 열고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포괄적 상호 협력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인하대병원은 김포메디컬캠퍼스에 7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 건립에 나선다. 인하대병원은 1996년 개원 이후 인천의 의료 서비스 향상에 앞장서며 전국 단위 의료질평가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에서 최상위 수준을 달성해 왔다. 지난 25년간 축적하고 발전시켜온 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김포인하대병원(가칭)을 향후 경기 서북부 권역의 대표 거점병원으로 성장시켜 김포시민들에게 고품질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진료 안내 (2021년 9월 1일 기준)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가정의학과 ☎2240		최치호	가족건강관리, 금연	
		이연지	항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조세욱	노인의학	
감염내과 ☎2219		이진수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백지현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임재형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국제진료센터 ☎2080		김아름	일반내과	
		신현태	원격 피부과 의료상담	
		맹세리	일반정신과, 소아청소년정신과	
		손지성	성인정신과, 소아정신과	
뇌신경센터(BNC) ☎2370 2375	신경과 NRNN	나정호	뇌신경질환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배은기	경련, 발작, 의식소실, 불면증, 코골이, 수면 무호흡	
		윤혜원	뇌졸중, 치매, 뇌전증, 수면장애	
		김 룠	파킨슨병, 이상행동, 신경계회귀질환, 어지럼증, 두통, 뇌전증(간질)질환,수면질환	
		박수현	신경계질환자, 뇌졸중, 뇌혈관질환, 두통, 어지러움증	
		권순욱	근신경계질환, 루게릭병, 말초신경병, 근육병, 중증근무력증, 다발성경화증, 사신경척수염, 두통, 어지러움증	
	신경외과 NSNN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혈관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종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뇌혈관센터 (CBC) ☎3860 3865	신경과 (NRCB)	나정호	뇌혈관질환, 뇌졸중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윤혜원	뇌졸중, 치매, 뇌전증, 수면장애	
		김 룠	파킨슨병, 이상행동, 신경계회귀질환, 어지럼증, 두통, 뇌전증(간질)질환,수면질환	
		박수현	신경계질환자, 뇌졸중, 뇌혈관질환, 두통, 어지러움증	
	신경외과 (NSCB)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혈관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종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당뇨 & 비만센터 ☎3360, 2215	내분비 내과	홍성빈	골다공증, 내분비, 갑상선(당뇨병)	
		김소현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안성희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서다혜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조용인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서성하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외 과	허윤석	비만· 당뇨· 위수술	
		최윤석	비만· 당뇨· 위수술	
		산부인과	이병익	중약학, 불임, 폐경기
		소아청소년과	이지은	소아비만상담, 종합검사, 식이요법,운동요법
		가정의학과	이연지	인지행동요법, 체중감량후체력증진
류마티스내과 ☎2210~1		박 원	관절염, 골다공증, 루프스	
		권성렬	관절염, 혈관염, 베체트, 레이노	
		임미진	관절염, 척추염, 통풍	
		정경희	관절염, 척추염, 통풍, 자가면역질환	
		김우철	폐암, 흉선종, 대장암, 직장암, 간암, 담도암	
방사선종양학과 ☎3070		김현정	유방암, 비뇨기암, 두경부암, 부인암	
		이정심	부인암, 유방암, 특수방사선치료	
비뇨의학과 ☎2360		이택	전립선, 종양, 결석, 소아	
		류지간	성기능장애, 남성불임,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강동혁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내비뇨기과학	
		정두용	비뇨기 종양, 결석, 전립 질환	
		김종원	비뇨기종양(방광암, 전립선암, 신장암), 로봇/복강경수술, 비뇨기재건, 요로결석, 전립선비대증, 요로감염, 혈뇨, 요실금, 배뇨장애	
산부인과 ☎2270, 2117		이병익	중약학, 불임, 폐경기	
		황성욱	중약학, 복강경	
		최수란	고위험임신, 정밀초음파	
		이방현	중약학, 복강경	
		장신아	일반부인과, 부인과내분비학	
		최화연	일반부인과, 부인종양, 일반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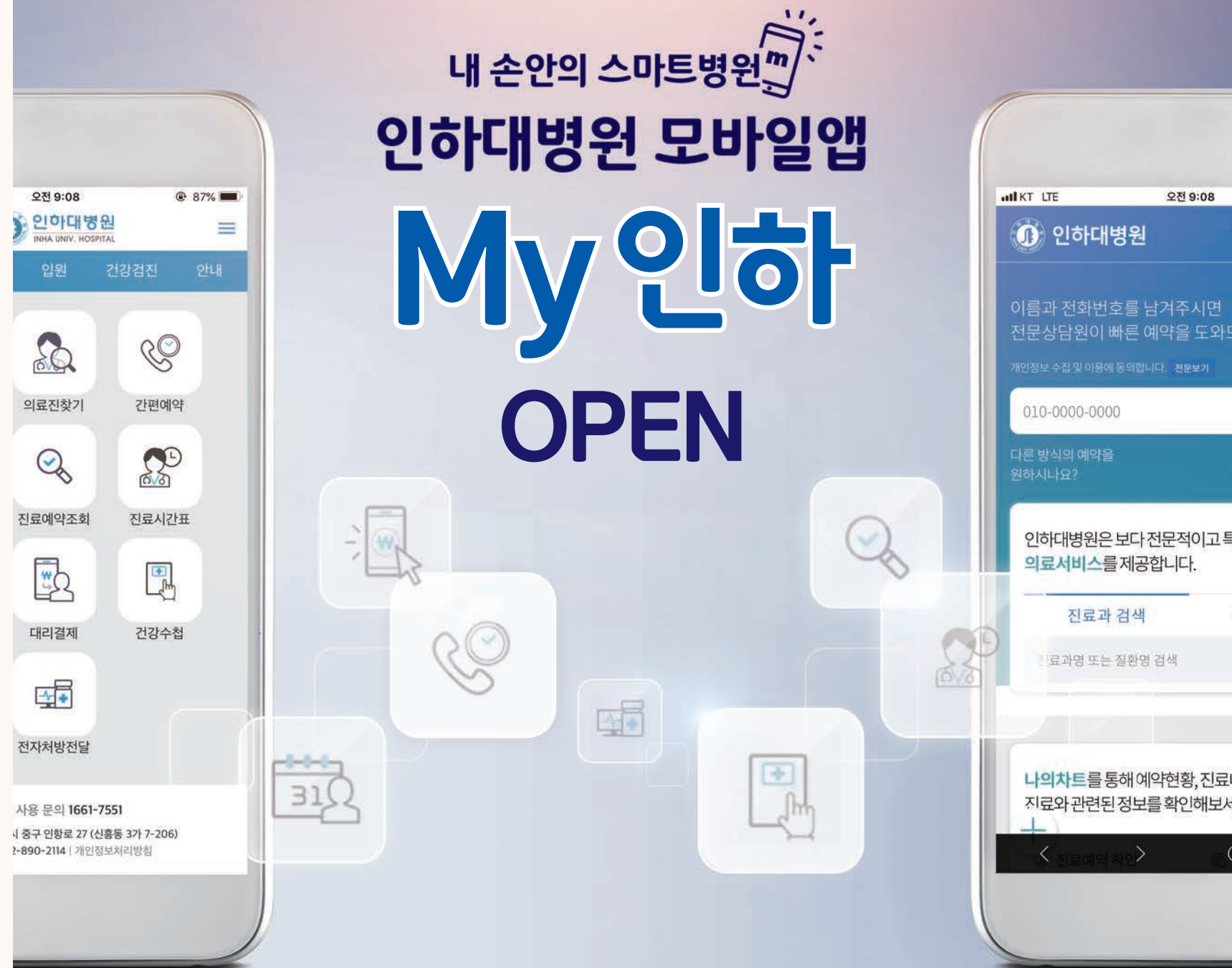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성형외과 ☎3870		황 건	얼굴외상 및 골절, 흉터 성형술		
		기세휘	미세수술, 수부외과수술, 하지재건술, 손톱재건술, 미용수술		
		홍민기	수부, 당뇨발, 피부양성종양, 흉터, 미용성형, 육창, 보톡스 및 필러, 체형교정(복부성형)		
소아청소년과 ☎2260		전용훈	신생아, 미숙아, 발달		
		임대현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김정희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권영세	신경, 뇌전증(간질),두통		
		이지은	사춘기조숙증, 저신장, 당뇨, 갑상선, 내분비질환, 신장질환		
		김동현	감염, 결핵, 불명열, 특수예방접종, 여행자의학		
		아주영	신생아, 미숙아, 발달		
		김수진	유전성대사질환, 사춘기질환, 저신장, 당뇨병, 갑상선내분비질환		
		신은정	소아심장(선천성 심장질환, 기와사기병, 소아고혈압, 심초음파), 소아신장질환		
		박지선	소아청소년 내분비학, 소아 성조숙 및 저신장		
		이가희	신생아,미숙아,발달		
		박정아	혈액, 중앙		
소화기내과 ☎2224		김형길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이도행	담도·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권계숙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이진우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정 석	담도암, 췌장암, 담석증, 담도·췌장질환, 위내시경		
		진영주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박진석	소화관, 간, 담도, 췌장질환		
		유정환	간, 소화관,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고원진	위장관 질환, 소화관 암위암, 대장암, 식도운동질환, 역류성식도염, 비만		
		신중범	위· 대장질환, 소화관 암, 소장질환, 염증성장질환		
		차보람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나정호	뇌혈관질환, 뇌졸중		
신경과 ☎3860		최성혜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박희권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뇌전증, 수면장애		
		배은기	경련, 발작, 의식소실, 불면증, 코골이, 수면 무호흡		
		윤혜원	뇌졸중, 일과성 허혈성 발작, 치매, 기억장애, 두통		
		최석진	말초신경,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척수질환, 수술 중감시, 두통, 어지러움증, 신경통증, 뇌전증, 수면장애		
		김 룠	파킨슨병, 소뇌질환, 소뇌질환, 근긴장이상증, 헌팅턴병, 기타 이상 운동 질환, 파킨슨과 관련된 치매, 뇌전증(간질) 질환, 수면질환		
		권순욱	근신경계질환, 루게릭병, 말초신경병, 근육병, 중증근무력증, 다 발성경화증, 시신경척수염, 두통, 어지러움증		
		박수현	신경계질환자, 뇌졸중, 뇌혈관질환, 두통, 어지러움증		
		김은영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혈관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현동근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신경손상, 두부외상		
		윤순환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축만증		
신경외과 ☎2370		심유식	뇌혈관질환, 신경종재술, 두부외상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류달성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척추축만증		
	신장내과 ☎2229		이승우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혈액투석, 복막투석	
			송준호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혈액투석, 복막투석	
			황선덕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김기표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김기표	신장이식	
			황선덕	신장이식	
			강지희	신장이식, 혈관이식	
			정태영	신장이식, 혈관이식	
		심뇌재활센터(RMCR) ☎2480		정한영	뇌졸중(중풍), 소아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좌경림	심장재활, 호흡재활, 뇌재활, 인지재활, 어지럼증재활, 두경부 통증	
심혈관센터 (CVC) ☎2200			CV	권 준	관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근증, 고혈압
				김대혁	부정맥, 심신, 심박동기, 관동맥질환
	우성일			관동맥질환, 심혈관중재시술, 고혈압	
	신성희		심부전, 고혈압, 심장판막질환		
			권성우	협심증, 관상동맥질환, 심혈관 중재시술	
			박상돈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질환 중재시술	
	백용수		부정맥 심방세동 서맥 빈맥 전극도자절제술		
			윤광석	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심혈관중재시술	
			최성환	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심혈관중재시술	
	PD		신은정	소아심장(선천성 심장질환, 기와사기병, 소아고혈압, 심초음파), 소아신장질환	

암진료 안내 (2021년 9월 1일 기준)

• 암통합지원센터 (032)890-3768, 3638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위암	소화기내과	김형길	위암, 염증성 장질환
		권계숙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난치성 변비, 운동성 장질환
		고원진	위암, 식도암, 위.식도질환, 운동성 식도질환
	외과	허윤석	위암, 소화성 궤양, 위기질성종양, 비만수술, 복강경 수술
		최윤석	위장관 외과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위암, 식도암, 대장암
		하혜림	위암, 식도암, 기타 고형암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위암, 식도암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대장암	소화기내과	김형길	대장암, 위암, 염증성 장질환
		권계숙	위암, 대장암, 식도암, 염증성 장질환, 난치성 변비
		고원진	위암, 식도암, 위.식도질환, 운동성 식도질환
		신종범	대장암, 위암, 위.대장 질환, 염증성 장질환
	외과	최선근	대장암, 직장암, 항문암, 복강경 및 로봇 대장절제술
		정성택	대장암, 직장암 복강경 및 로봇 대장절제술, 대장항문질환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대장암, 위암, 유방암, 부인암
		임주한	대장암, 위암, 육종, 기타 고형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폐암, 흉선종, 대장암, 직장암, 간암, 담도암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간암	소화기내과	이진우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진영주	간질환, 간암, 만성B형, C형 간염
		유정환	간암, 만성간염, 알코올성간질환, 지방간
	외과	안승익	간암, 간아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이건영	간암, 간아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신우영	간암, 간아식,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복강경 수술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간암, 위암, 대장암, 두경부암, 항암화학요법, 비노기암 뇌척수종양
		김우철	폐암, 흉선종, 대장암, 직장암, 간암, 담도암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및 간병리	
췌담도암	소화기내과	이도형	췌장암, 담도암, 췌장염, 담석증, 치료내시경
		정석	췌장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염, 담석질환
		박진석	췌장암, 담도, 췌장질환, 간질환, 치료내시경
	외과	안승익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아식, 복강경 수술
		이건영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아식, 복강경 수술
		신우영	췌장암, 담도암, 담석증, 간암, 간아식, 복강경 수술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췌장암, 담도암, 항암화학요법
		하혜림	췌장암, 담도암,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췌장암, 소화기암	
병리과	김준미	소화기병리	
폐암	호흡기내과	이홍렬	폐암, 폐결절,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곽승민	폐암, 폐결절,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류정선	폐암, 폐결절, 표적치료, 폐암 조기검진, 늑막염, 면역치료
		남해성	폐암의 진단과 치료, 폐암 맞춤치료, 폐결절, 폐암 조기검진
		임준혁	폐암, 폐결절,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암 조기검진
	흉부외과	윤용한	폐암, 식도암, 흉선암, 동맥경질환, 흉강경 수술
		김영삼	폐암, 식도암, 흉선암, 동맥경질환, 흉강경 수술
	혈액종양내과	조진현	폐암, 흉선암, 혈액암
김진철		폐암, 흉선암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폐암, 흉선종, 대장암, 직장암, 간암, 담도암	
병리과	김루시아	폐병리	
혈액암	혈액종양내과	조진현	혈액암, 혈액질환, 조혈모세포이식
		김진철	혈액암, 혈액질환->추가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혈액암, 육종, 유방암, 부인암, 뇌척수종양
병리과	최석진	혈액림프관내계 병리	
갑상선암	내분비내과	홍성빈	갑상선암, 부신종양, 갈색세포종
		안성희	갑상선, 부신, 기타 내분비질환
		김소현	갑상선, 내분비, 당뇨
		서다혜	갑상선, 당뇨, 기타 내분비 질환
		조용인	갑상선, 내분비질환, 부신

진료과		교수	세부전공
갑상선암	외과	이진욱	갑상선 내분비 질환, 로봇수술, 구강 내시경수술
	이비인후과	최정석	갑상선암, 후두암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김지원	갑상선암, 후두암 및 두경부 종양, 구강 및 타액선 질환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갑상선암 및 두경부암의 항암화학요법
		하혜림	갑상선암 및 두경부암의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갑상선암, 두경부암, 부인암, 유방암
	핵의학과	현인영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종양핵의학
이민경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분자영상의학	
유방암	외과	박신영	유방암, 유방질환
		임성목	유방암, 유방질환
	성형외과	기세휘	유방재건, 유방성형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유방암, 부인암
	방사선 종양학과	김한정	유방암,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부인암	산부인과	이병익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생식 내분비(불임, 폐경)
		황성욱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복강경 수술
		이방현	부인종양학(난소암,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이외 산부인과 총영)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자궁암, 난소암, 희귀암, 유방암
		하혜림	자궁암, 난소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유방암
	병리과	최석진	산부인과병리
비뇨기암	비뇨의학과	이택	배뇨장애, 전립선질환, 종양, 소아
		강동혁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신이식, 내비뇨기과학
		정두용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김종원	종양, 혈뇨, 결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방광암, 신우요관암, 신장암, 전립선암
		하혜림	방광암, 신우요관암, 신장암, 전립선암
	방사선종양학과	김한정	전립선, 방광암, 신장암, 신우요관암
병리과	한지영	비뇨기병리	
두경부암	이비인후과	최정석	구강암, 편도 및 인두암, 후두암, 침샘종양, 경부종양
		김지원	구강암, 편도 및 인두암, 후두암, 침샘종양, 경부종양
	성형외과	기세휘	조식재건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구강암, 편도 및 인후두암, 위암, 식도암
		하혜림	구강암, 편도 및 인후두암, 위암, 식도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비인두암, 구인두암, 구강암	
중앙스트레스 클리닉	정신건강의학과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임파부종 클리닉	재활의학과	김명옥	암재활 - 림프부종
피부암	피부과	변지원	피부암, 혈관종양 및 혈관기형 질환, 피부레이저 클리닉
		최광성	항암제 피부 부작용, 건선, 조갑질환, 탈모, 모발이식
		신정현	항암제 피부 부작용, 색소질환, 흉조, 피부병리
		신헌태	소아 피부질환(혈관종 포함), 항암제 피부 부작용, 희귀 유전질환
	성형외과	기세휘	피부암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피부암, 혈관종양, 육종, 기타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피부암, 혈관종양, 육종
병리과	김루시아	병리학	
뇌·척추종양	신경외과	김은영	뇌종양, 뇌하수체종양, 두개기저부종양, 소아뇌종양
		윤승환	척추종양, 척추 변형 수술,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류달성	척추종양,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혈액종양내과	임주한	뇌척추종양, 두경부암, 소화기암, 비뇨기암, 희귀암
		하혜림	뇌척추종양, 두경부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뇌종양, 뇌전이암, 척추종양, 육종, 두경부암, 유방암	
근·골격종양	정형외과	강준순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이동주	골육종, 연골육종, 손·저림, 손가락 통증, 상지 신경 수술
		권대규	골육종(18세 이하)
	혈액종양내과	이문희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방사선종양학과	이정심	골육종, 연골육종, 연부조직암



※개선 기능은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인하대병원** 검색

-  **진료예약**
어디서든 간편하게
진료예약 가능
-  **진료비결제**
대기없이 간편하게
병원비 결제
-  **진료대기순서**
대기 순서 알림으로
기다림 없이 진료
-  **진료예약조회**
예약한 진료일정을
간편하게 조회 가능
-  **내일정**
병원스케줄을
한눈에 확인 가능
-  **실손보험청구**
복잡한 신청서류 없이
실손보험 즉시 청구
-  **전자처방전달**
종이 처방전 없이
간편하게 전자처방 전달
-  **건강수첩**
기본적인 건강관리
(혈압, 혈당, 체질량)

